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기획의도

진행과정

우리가 하나의 틀로 인식하고 있는 한옥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지역에 따라 각기 나름대로 고유의 특징과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재료와 구법에 있어서도 흙과 나무,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 공통의 요소를 기반으로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따라 뛰어난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한옥은 고정된 양식의 건축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나 생활변화에 따라 항상 새롭게 움직이고 변하는 생체 반응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한옥은 과거의 생활로 가기 위한 복원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을 구체적이며 실증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시대는 전통한옥과 더불어 변화해 가는 삶의 요구를 반영한 한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날로 진화하는 건축 재료와 이를 활용한 구법의 끊임없는 개발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한옥에는 고유의 삶과 현재의 삶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한옥은 어느 시점과 어떤 형식에 머물지 않고 전통의 토대 위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변적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공지

2013. 8. 14

계획부문 워크숍

2013. 9. 28

작품접수

2013. 11. 11 - 11.14

심사

2013. 11. 19 - 12. 9

시상식

2013. 12. 20

전시회

1차 전시회 (안중근의사기념관)

2013. 12. 20 - 12. 27

2차 전시회 (공항공철도 공덕역)

2014. 1. 13 - 1. 20

운영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박경립 교수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최군성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한동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박희성 연구교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심사위원	건축· 계획 부문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이왕기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김종현 교수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김준성 교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이유직 교수
	사진부문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최군성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이강업 교수
		사진작업실 「비온후」	이인미 대표

차례

기획의도	2
운영 및 심사위원 / 진행과정	3
건축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산청울수원	6
올해의 한옥상 #200	10
올해의 한옥상 시하장	14
계획부문	
대상	20
특별상	24
금상	26
은상	28
동상	32
입선	38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60
특별상	62
금상	64
은상	66
동상	68
입선	70
사진부문 청소년	
특별상	78
금상	80
은상	82
동상	84
입선	86

건축부분



건축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산청 울수원

山淸聿修園

산청울수원이 위치한 단계 한옥마을은 산청 황매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분지로, 단계천과 신등천이 합수되는 두물머리 지역에 위치하며, 명문 고택의 전통과 옛 담장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기품이 서려있는 마을이다. 순천박씨 고헌고택이 있던 자리에 지역성을 반영한 9채의 건물과 사랑마당, 안마당, 후정의 외부공간을 가지는 한옥스테이 시설로 계획하여 우리 것의 우수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설계자 권현호
건축사사무소 삼간일목

시공자 이문호
가은엔파트너스

건축주 재능교육

대지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700번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2,519m²
건축면적 465.21m²
연면적 599.30m²
건폐율 18.47%
용적률 18.47%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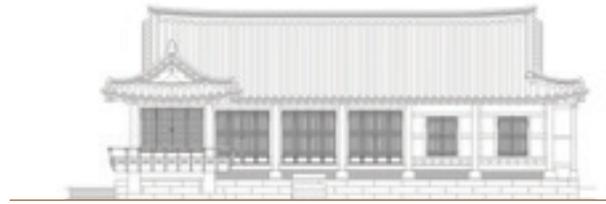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용담정 龍潭亭

하계재 下溪齋



농암 農庵



고헌 古軒



국이관 鞠二館 · 소요유 逍遙遊



- | | |
|----------|-----|
| 1. 안채 | 하계재 |
| 2. 안사랑채 | 농암 |
| 3. 식당채 | 국이관 |
| 4. 바깥사랑채 | 고헌 |
| 5. 목욕채 | 설조당 |
| 6. 대문채 | 영수문 |
| 7. 광채 | 지만오 |
| 8. 사모정 | 용담정 |
| 9. 사주문 | 울수문 |

산청울수원의 중심 건물로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의 겸손을 의미하는 하계재는 누마루가 있는 6칸 7량의 안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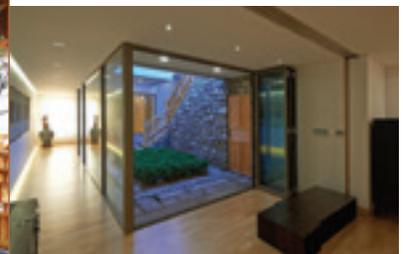
바깥주인의 공간인 농암農庵은 농자農者의 초막이라는 뜻으로, 겸손의 공간을 의미하며 팔작지붕의 형태와 겹처마를 가지며 울수원 중심에서 화려함을 드러낸다.



고헌은 손님이 머무는 공간으로 선비정신을 품고 있는 옛 사랑채라는 의미를 가지며, 'ㄱ'자형 평면으로 두 침실과 뒷마루를 가진 영역과 계자난간의 누마루를 포함한 영역으로 구분된다.



식당채는 지하층이 있는 한옥으로 국이관은 몸과 정신을 기르는 장소라는 의미의 식당공간이며 소요유는 함께 어울려 즐기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0



한옥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기존 한옥의 단점인 단열 및 공간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옥이 우리시대에 맞는 자유로운 형태와 기능의 변화를 할 수 있게 하여 한옥이 다양한 쓰임으로 사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언제나 유효하고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좁은 대지의 폐쇄형 도시형 한옥에서 부족한 공간의 확장을 위해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마선 안쪽에 머리벽장을 만들고, 대청 뒤쪽은 지하계단실과 작은 마당을 만들어 마당과 대청, 뒷마당이 단절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좁은 마당의 채광을 위해 목책을 뚫어 유리로 마감하여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단열은 지붕공사와 벽체 및 당골막이, 머름 등에 현대적 단열재를 넣어 단열을 해결하였다. 또한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규모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대적 기능을 담은 지하공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유효한 공간에서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설계자 김장권
북촌HRC

시공자 김장권
북촌HRC

건축주 이유경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대지면적 152.1m²

건축면적 84.15 m²

연면적 108.5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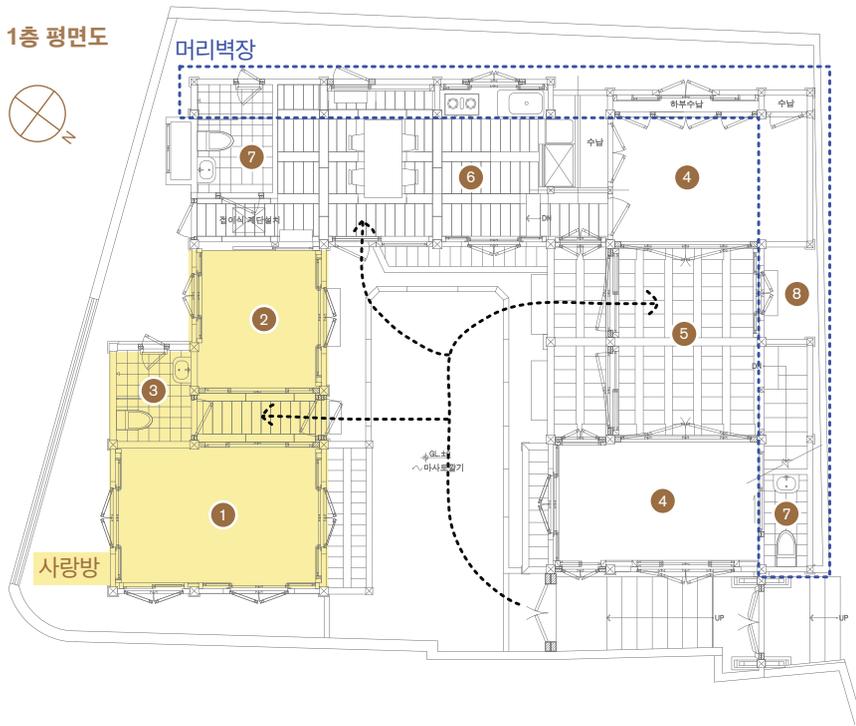
용도 주거시설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구조 지상 1층: 한식 목구조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조

준공일 2012. 2. 17

1층 평면도



자연의 方向과 景畵를 빌리다

ㄱ자, ㄴ자 형태로 폐쇄적으로 닫혀있던 기존 형태를 동측 개방한 ㄷ자 형태로 계획하여 차경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였으며, 공간은 크게 주 생활공간과 손님을 맞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획하였다. 뒷마루를 통해 동선을 배려하였고, 마당, 대청 등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가능성의 유연함은 유지하면서 대청은 건물의 중심이 아닌 남향에 두었고, 안주인이 중심인 현재 가족 사용의 특징을 반영하여 주방을 중심에 두었다.

사랑방

- ① 방
- ② 소청
- ③ 화장실

주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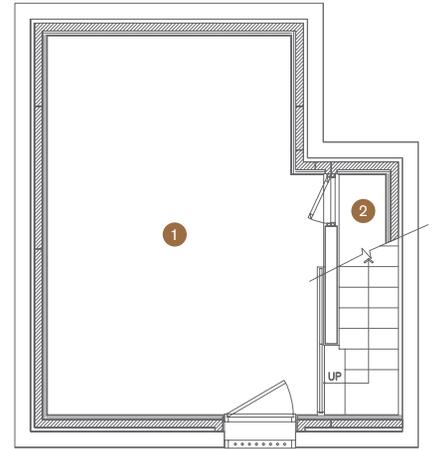
- ④ 방
- ⑤ 대청
- ⑥ 주방/상부다락

- ⑦ 화장실
- ⑧ 뒷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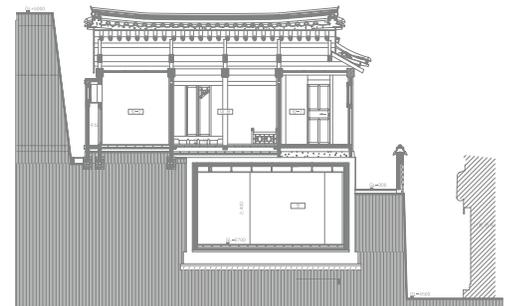


지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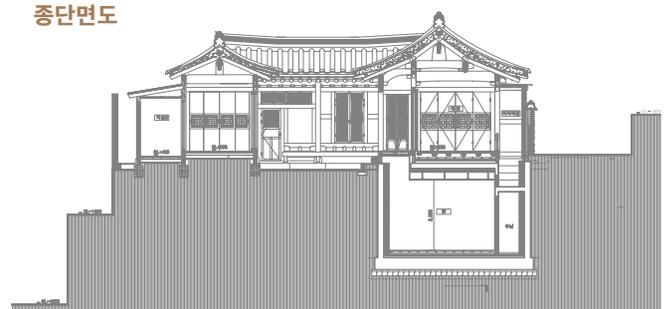
- ① 방
- ② 수납



횡단면도



종단면도



수직적 확장 | 생활공간으로서의 다락

한옥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대적 기능을 담은 지하공간을 계획하였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다락을 두었다. 특히 주방 상부 다락은 전통적 수납을 위한 다락이라면 화장실 상부 다락은 차를 마시고 밖을 볼 수 있게 하여 수납공간으로 머물고 있던 다락을 생활공간으로 영역을 넓혔다.



시대성 담기 |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가장의 귀환

사랑방은 방, 소청, 욕실로 구성하였고 출입구를 본체와 분리하여 사랑채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퇴직 후 가장이 독립적으로 집에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시대성을 담는 노력을 했다.

머리벽장,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한옥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의 해결방법으로 서측과 북측에 머리벽장을 계획함으로써 주방과 방을 확장시켰고, 방에는 수납장 및 독립된 화장실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대청 뒷마당과 지하 계단실로 활용하였다. 대청 뒤 머름창 밖은 채우지 않고 비움으로써 비, 바람,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마당으로 계획하여 앞마당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 채광 및 환기

대청 뒷마루 하부에 창을 설치하여 마당으로부터 빛이 유입되게 하였고, 공간감과 개방감을 주었다. 지형의 차이를 이용해 상부에 창을 두어 채광 및 환기가 될 수 있게 하였고, 계단실 하부 공간은 수납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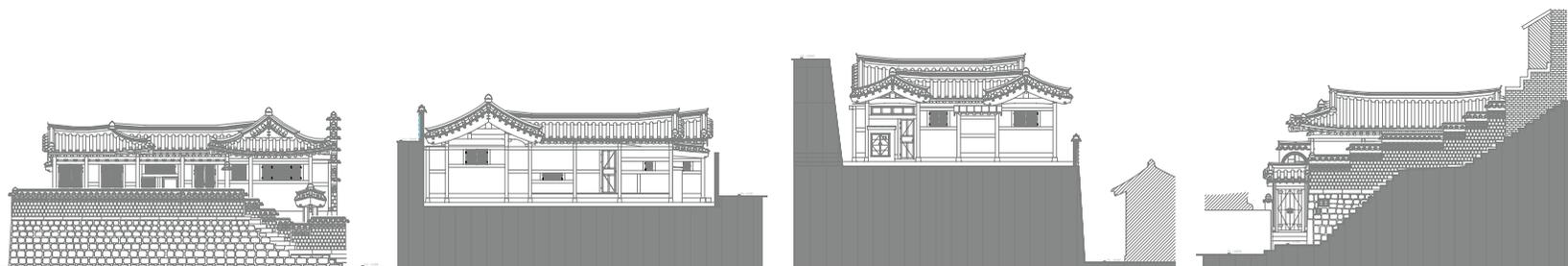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시하장

柿下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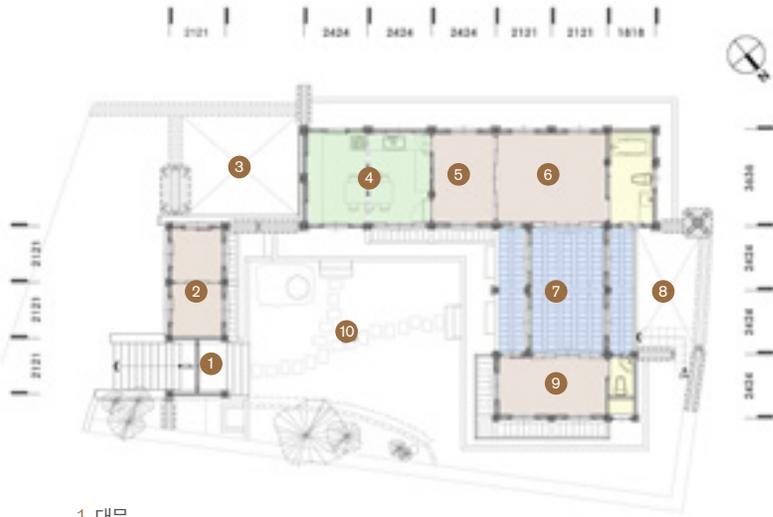
시하장은 건축주가 기거했던 한옥의 당호로, 집에 큰 감나무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건축주가 유년시절부터 50여 년간 살아온 시하장은 건축가이자 도목수였던 선친과의 기억이 구석구석에 가득 배어있어, 그 사랑이 남달랐으며, 오랜 한옥생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한옥처럼 단아한 모습이었다. 구 시하장은 과거 사리원 김씨라는 목수가 지었다고 한다. 한옥은 어느덧 세월의 더께가 두텁게 쌓여 일흔 넘은 노인이 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계제에 건축가였던 선친을 기리는 의미에서 새 한옥을 건축하게 되었다. 대지는 구옥에서 멀지 않은 성북초와 선잠단지 사이, 길상사 방향에 있다. 선잠로 변에서 옆으로 열린 막다른 골목의 완만한 경사가 정겹다. 새 건축부지에는 3층짜리 폐가가 있어 흥가와 같았으나 동남향의 반듯한 정방형 대지는 밝고 시원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고, 일조량과 통풍도 풍부했다.



설계자	송동철 (주)건축사사무소 소도
시공자	이종원 건원고건축
	정영수 두해고건축
건축주	조영자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29-8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327m ²
건축면적	97.38m ²
연면적	194.13m ²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구조	한식 목구조 + RC조
건폐율	29.78%
용적율	29.78%

1층 평면도



- 1. 대문
- 2. 사랑방
- 3. 아랫마당
- 4. 부엌/ 다락
- 5. 침대방
- 6. 안방
- 7. 대청
- 8. 선큰
- 9. 건넌방
- 10. 마당

지하 1층 평면도



- 11. 아랫마당
- 12. 주차장
- 13. 거실/부엌
- 14. 방1
- 15. 방2
- 16. 선큰
- 17. 드라이피트





서울지방의 민가 형식을 재현

서울지방 민가의 기본형은 ㄱ자 평면형이다. 가로방향은 대청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위치한다. 부엌은 세로방향 아래에 위치해 동서로 면한다. 또 ㄱ자 평면에 사랑, 광, 대문 등이 부속되어 확장하는 형식이다. 시하장은 대지의 형상과 방위를 고려해 서울지방 민가의 기본형을 따르고 대문채를 배치하였다.

지하층과 한옥의 관계 풀어내기

근래 건축되는 한옥들은 경제성과 현대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하층을 건축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거로서 지하층은 부정적이다. 한옥과의 관계 설정도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시하장은 경사지라는 부지 특성을 활용해, 대지에 레벨차의 변화를 줌으로써 숙제를 풀었다. 지하공간에 빛과 바람을 들였고, 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선큰과 아랫마당, 드라이피트가 제격이었다. 한옥에서 마당은 당당히 건축의 일부분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안채마당과 지하층의 아래마당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풀었다. 아래마당을 활용해 지하공간에도 한옥의 감성을 불어넣었다.



계획부문

과거 '비움'으로 드러났던 마당,
도심 속 숨겨진 정원으로서의 가능성

서울이라는 도심 속에는 숨어있는 수 많은 역사들이 있다. 그 중에 종로부근에 남아있는 한옥들도 현재는 많은 부분이 잊혀졌으며 지워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 사라져가는 도심 속 역사를 찾아가고 싶어서였다. 새로운 한옥을 굳이 새로운 곳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기보다 역사적 연속선 상에서 이어가는 것이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도심 속에 한옥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이 도시조직과 연결시켜 도시공간의 일부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우리 작품의 주안점이었다. 다음은 숨어있던 도시 속에 또 다른 차원(새로운 한옥의 가능성)과의 만남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Circula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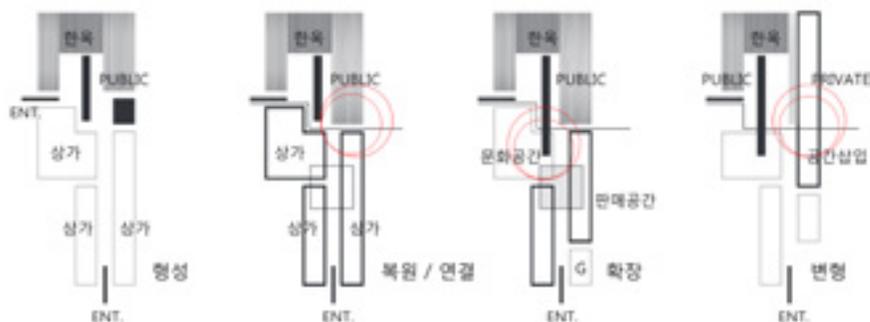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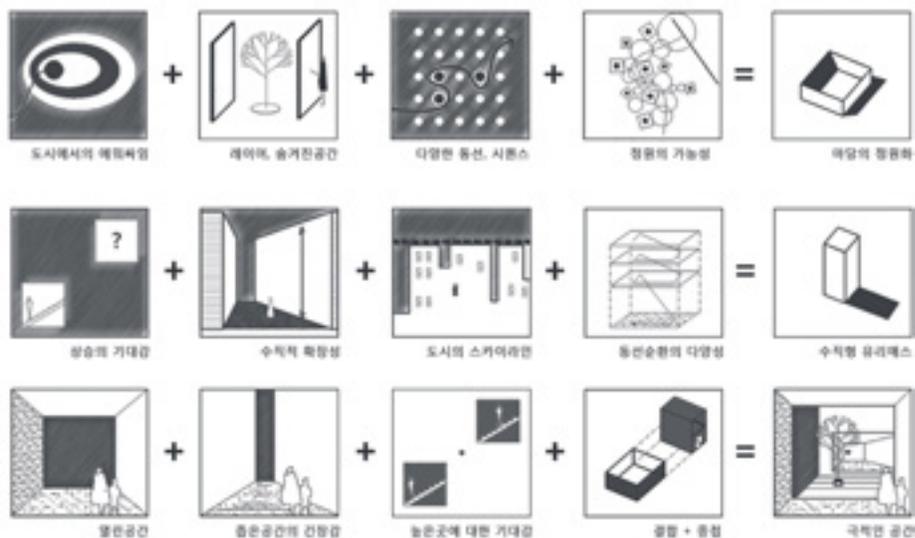


대상 김해환
허재필
권지훈

潛園 | 드러나지 않은 비밀의 정원



Concept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29-8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327m ²
건축면적	97.38m ²
연면적	194.13m ²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구조	한식 목구조 + RC조
건폐율	29.78%
용적율	29.78%

한옥에 접목하려는 새로운 가능성

용도의 변화 주거 → 문화, 상업, 업무

사용자의 소통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현대사회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한옥의 관광 상품이나 보존지구에서 머물지 말고 도시의 변화와 성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 상업, 업무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형태의 변화 수평 → 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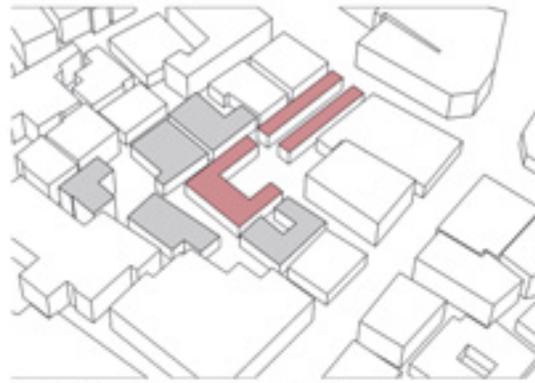
공간의 소통

한옥은 가구식 구조를 이용한 획일적인 수평적인 공간 확장에서 벗어나 수직적인 확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직적인 확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적인 변화와 동시에 다양한 공간기능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구조가 가지고 있는 높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을 통한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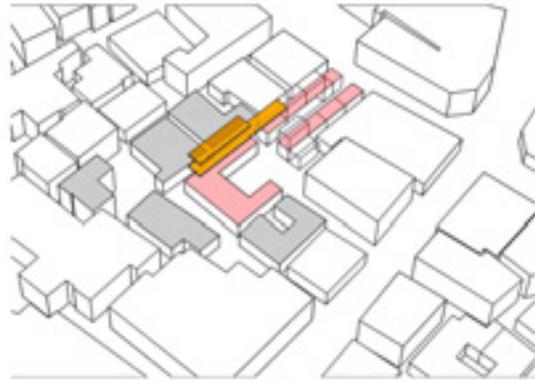
조직의 변화 독립 → 결합(도시조직)

도시조직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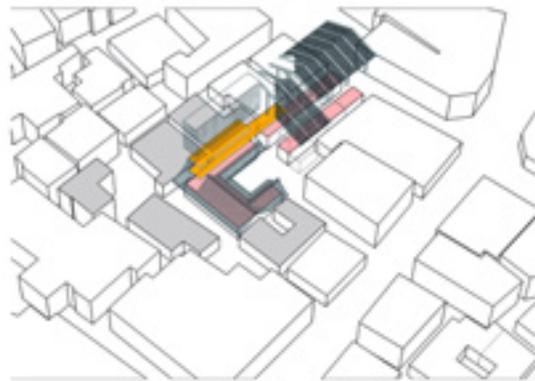
한옥의 독립적인 구조형태에서 탈피하여 변화되는 도시 구조와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한옥은 외부에서 폐쇄적이지만 내부에서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이유는 마당의 열린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의공간을 활용을 통해서 도시조직과 연결한다면 더욱 다양한 소통공간들이 형성되어질 것이다



1. 원활한 진입을 위한 공간 열어주기



2. 컨텍스트 대응을 통한 매스 확장



3. 외피 및 공간으로 한옥의 정체성 형성

평면도 및 배치도



Structure View



Perspective View



Bird's Eye View



전시실 및 2층 진입부



진입마당



출입복도



전시실 및 2층 진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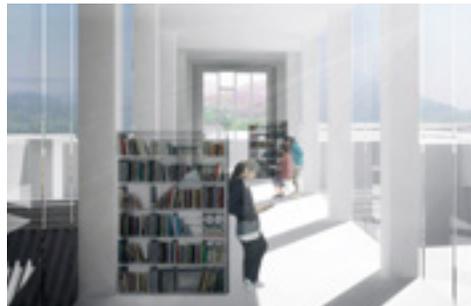
잠원루 (사색의 공간-2층)



잠원(마당)



도서관





출구계단 · 연등전당



안당의 장소 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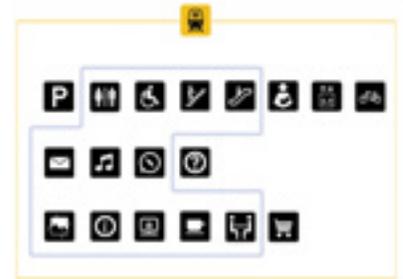
회계 (유계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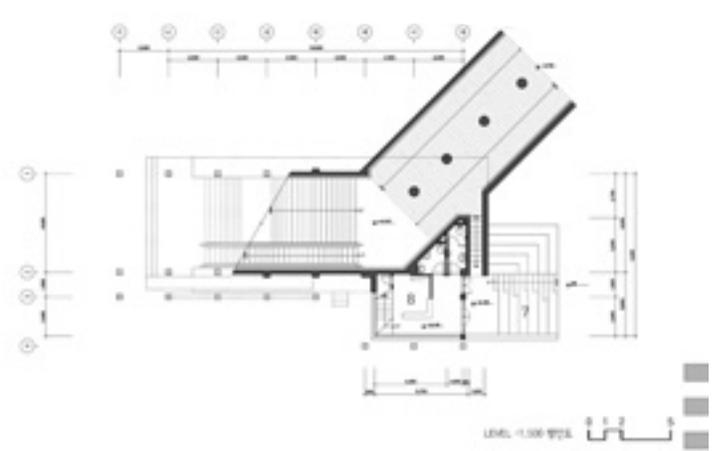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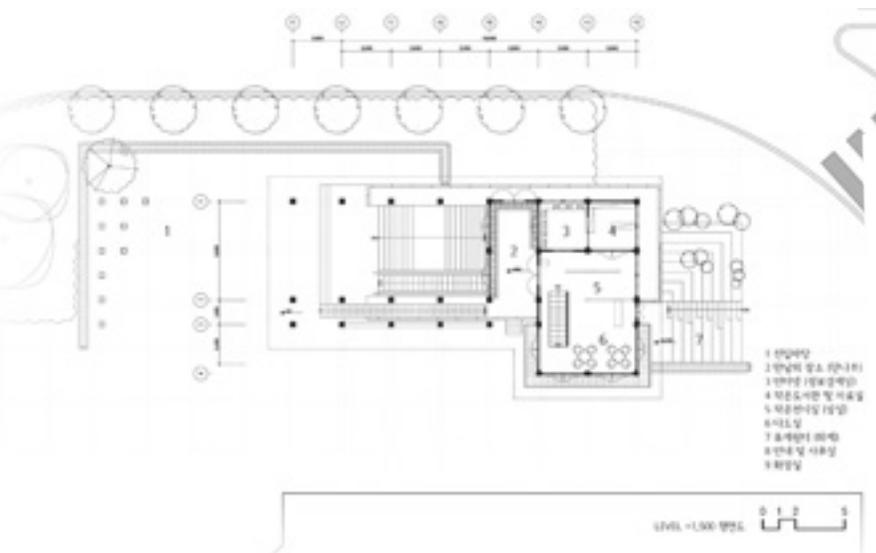
전입부 · 회담



안대 · 유계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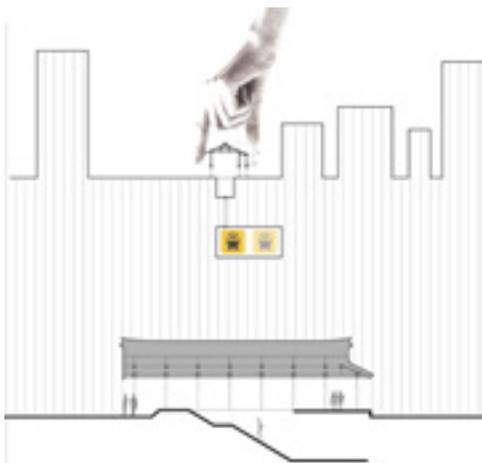


기능의 연계성



의외루 광화문역 5번 출구

대비의 공간, 공존의 가능성



현대도시 서울은 짧은 시간에 수직성장과 공간적 확장을 거듭해 왔으며, 현대인들의 삶 또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 지하철의 편의성과 인프라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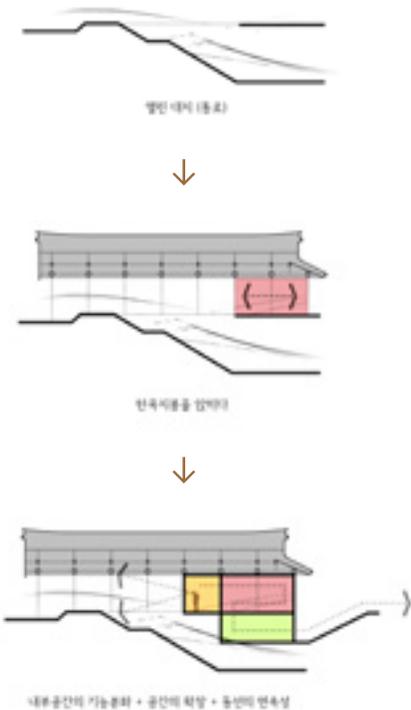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확장은 과거 한옥주거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게 만들었다. 한옥마을 또는 궁궐담장으로 뚜렷한 경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옥을 보거나 체험하기 위해서 답사를 해야 하거나 찾아가는 수고를 감내해야한다. 그 만큼 우리에게 '한옥'이라는 화두는 친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와 도시 속에서 다양한 건축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지는 청계천광장과 일민미술관으로 통하는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로 다양한 건물군과 과거에 건설된 지하철 출구 보다는 물리적인 대지 현황에 여유가 있는 편으로 한옥지붕을 씌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움의 디자인 서울'을 모토로 지하철 출구의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 매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 전략으로 현대인들의 삶을 대변 할 수 있는 지하철 출구 위에 한옥을 앉히고 출구가 되는 동적, 공적공간은 누하진입을 계획하여 연등천장과 한옥 내부의 만남의 장소(만나루)로 시선이 교차되고, 마당에서 회랑, 만나루에서 전시공간과 화계로 흐르는 연속적인 동선을 계획하였다.

전이공간인 회랑과 만나루는 시민들의 쉼터로서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 및 작은 도서관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책을 읽으며 바쁜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다.

끝으로 계획의 결론은 신속한 이동통로로만 인식했던 지하철 출구 위에 정적인 한옥을 계획하여 통행 중에도, 머무는 사이에도 한옥 구조미의 체험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이용하면서 한옥은 감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이며, 도시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도심블럭 내 개발애로 필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층형 커뮤니티 한옥 계획안

현대 도심지 블록의 한옥이 숨실 곳 없이 막히고 소외 받고 있다. 충북 청주시 서운동 일대의 주거지는 구도심에 위치하며 도심의 발달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마을이며 청주에서 과거의 한옥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도심의 발달로 필지가 세분화되고 좁은 도로와 맹지, 부정형의 필지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개발애로 필지가 생겼고 대부분의 한옥군들은 개발애로 필지에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개발애로 필지의 주변으로는 수직적으로 쌓아 올려진 다세대 주택과 고층건물물 인해 기존의 한옥군들은 숨실 곳 없고 점점 더 쇠퇴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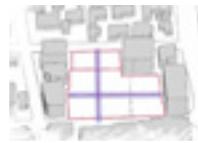
프로세스



1960년대 항공사진



필지에 따른 새로운
범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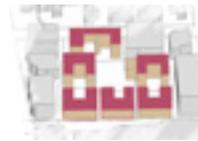
필지에 따른
단지내 도로 해석



필지에 따른
건물 재배치



외부공간 및 향, 채광을
고려한 배치, 층수 결정



최종배치형태

배치도



본 계획 대지는 개발애로 필지에 포함된 곳 중 한옥군이 가장 소외받고 주변과 단절되어 가는 곳으로 블록의 사방은 4층의 다세대주택과 5층의 아파트로 둘러싸여있는 대지이다. 간혀있고 숨실 곳 없고 주변과 소통할 수 없는 대지를 해결함에 있어 과거 한옥 사랑채와 사랑마당의 개념을 재해석했다. 과거의 사랑채는 외부로 열려있는 공간이며 외부인과 소통을 담고 있으며 자연과 소통하면서도 유교적인 학문을 위한 프라이버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의 도심블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일맥상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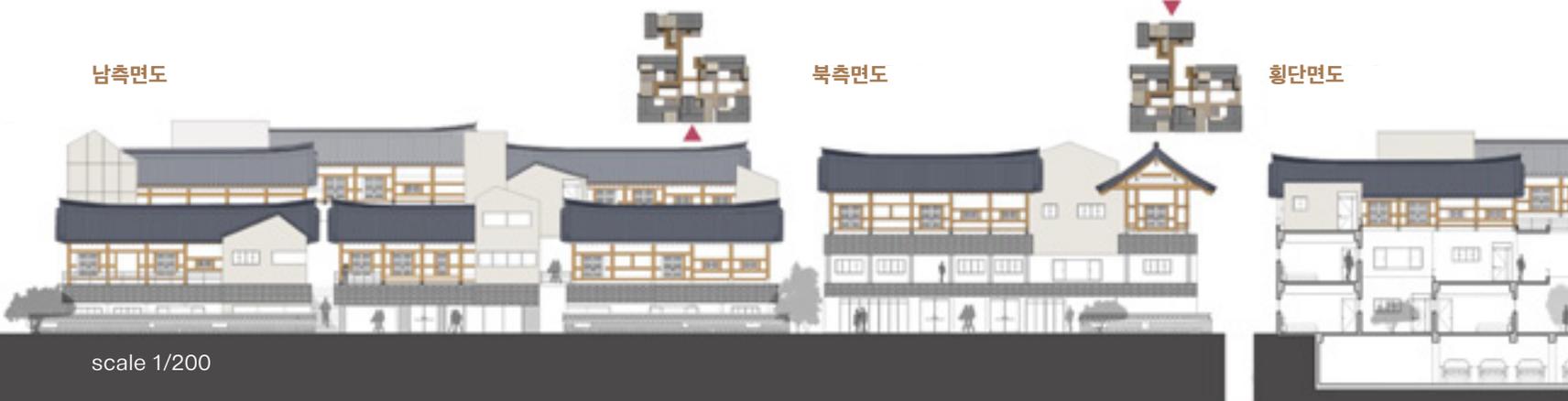
따라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과거의 필지를 해석하고 필지에 따라 새로운 범위를 형성하여 도로와 오픈공간을 해석하여 건물을 재배치하고 층, 향, 외부공간을 고려하였으며 사랑채, 사랑마당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가구마다 사랑마당을 두며 각각의 마당은 밖으로 연결되어 가구 간 마당이 서로를 향하고, 서로의 마당이 모여 커뮤니티 마당이 만들어지고 내-외부 공간을 확장한다. 또한 각 가구의 사랑마당, 마당이모인 커뮤니티마당, 커뮤니티 마당이 모이는 주민광장이 고려형식으로 상호 공간을 이어주어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ㄷ자 배치로 2층과 3층에서도 개인 사랑마당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마당을 이어주는 옥외마루를 계획하여 2층, 3층에서도 각 주호를 가구를 이어주어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마루의 일부를 오픈하여 외부공간이 시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숨실 곳 없는 도심지의 블록이 사랑마당을 품어 다시금 숨쉬고 주변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남측면도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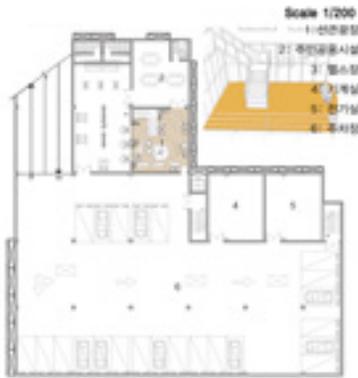
횡단면도



단면 해체도



평면도



지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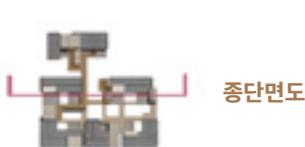
1층



2층



3층



중단면도



계획부문
금상
어인기

도심블럭,
사랑마당을
품다

계획부문

금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도심블럭,
사랑마당을 품다

지하 1층 &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지상 5층



생태적 모듬살이 도시마을 제안

三間集의 정의

우리나라 민가는 초가 삼간집이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 몸의 크기와 잘 맞고, 작지만 필요한 방들을 모으고 주변과 자연과 함께 살게되는 살림집이었다. 이러한 삼간이라는 공간적 질서와 원리를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재구성해 조화롭게 집합화(集)시켜 현대적인 살림집을 제안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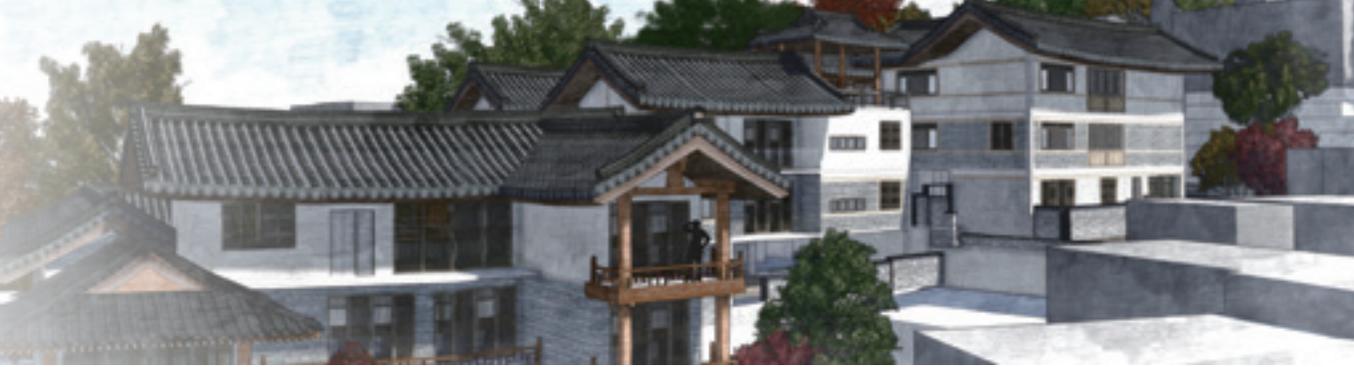
三間集 제안 배경

조선시대 부산의 중심지였던 동래읍성은 현재 일부 전통건축물과 성곽만 보존 또는 복원되어 있고 상업화된 건축물로 가득 차있다. 고립되어 있는 전통건축물을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몇 개 단지에 대해 한옥 마을을 조성해, 동래 읍성 내부가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진 장소로 재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대형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부산의 원형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한옥풍의 재개발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을 재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三間集의 제안

일인(一人) 가구를 포함해 고향을 잃은 도시민을 위해 제안한 三間集은 첫째, 원룸가구부터 3세대 가구까지 칸이나 채의 통합이나 연결 등 가변적인 조정이 가능한 공간 계획을 염두에 두었다. 둘째, 도시의 골목길과 마당을 채와 함께 엮어 도시민의 삶이 방에서 마당으로 골목길로 개방되고 소통될 수 있는 마을 단위로 제안하였다. 셋째 여러 켜의 담장과 공간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조화로운 형태미와 공간을 제안하였다. 넷째, 이러한 삼간집은 도시공동체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하도록 살려낼 수 있는 거주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소망한다.





계획부문
은상
김종석
송이나
정경화
유재우

계획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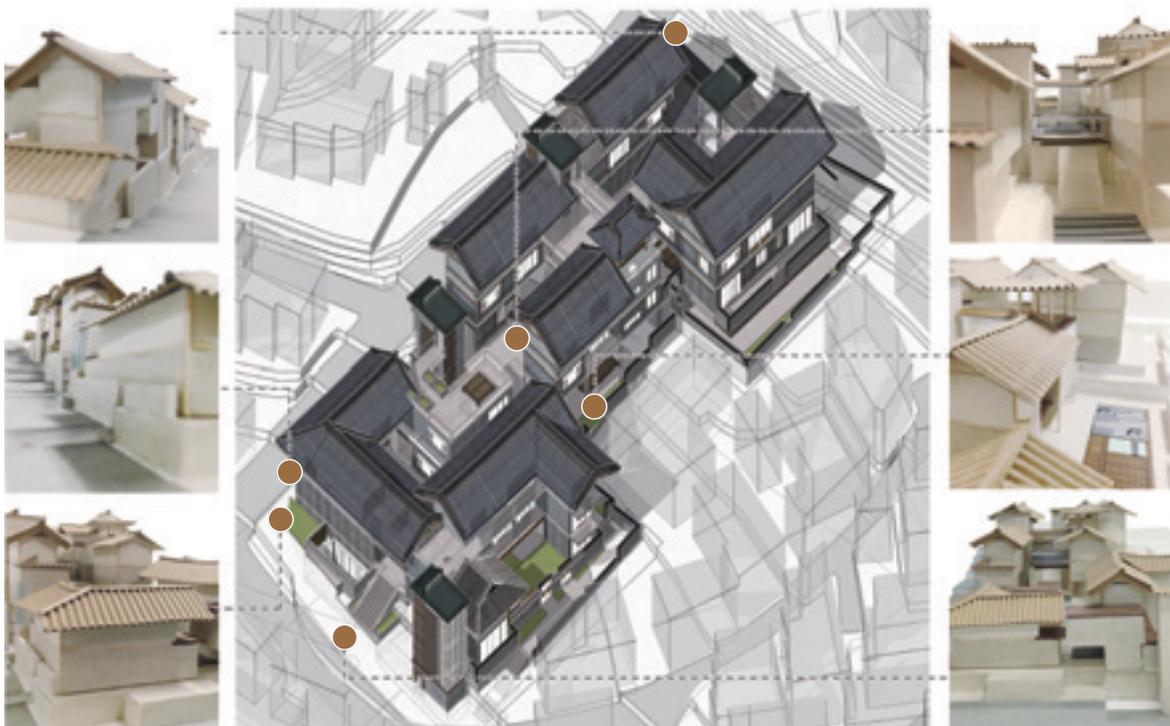
생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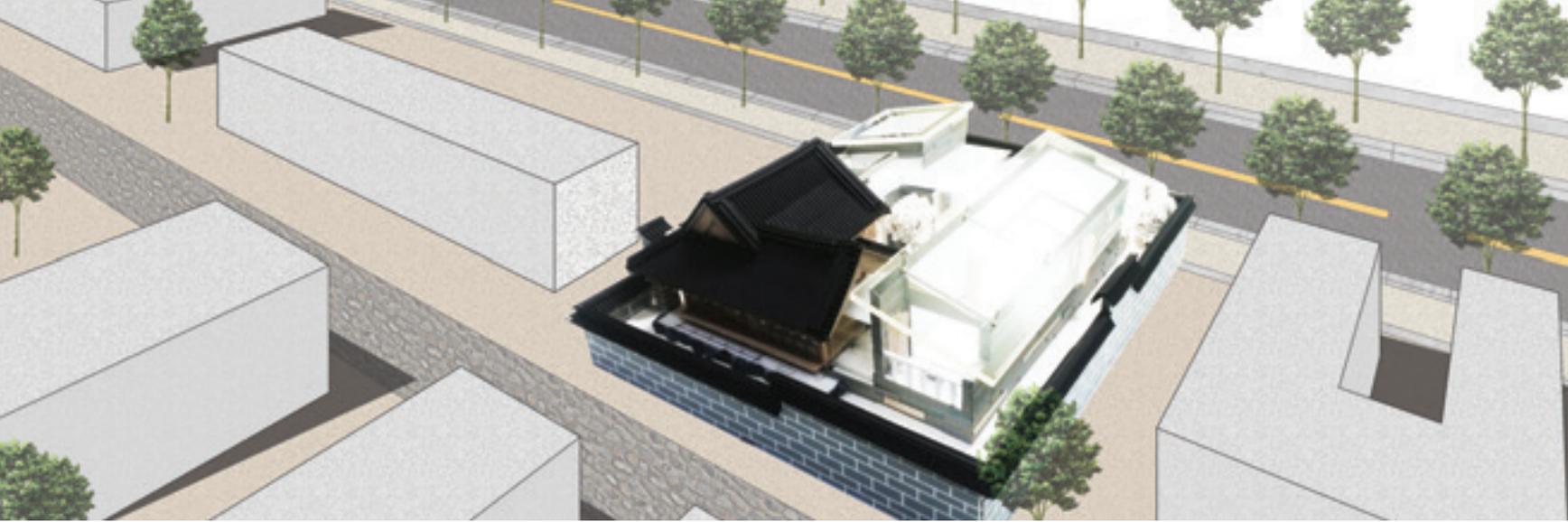
은상

삼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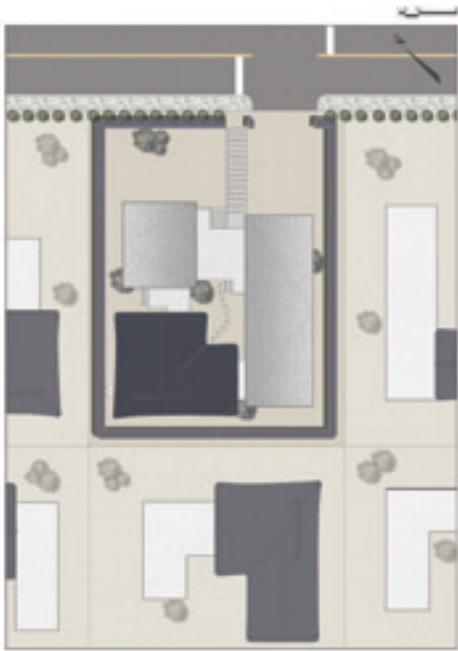
조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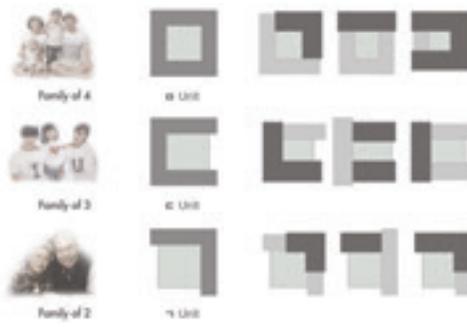
삼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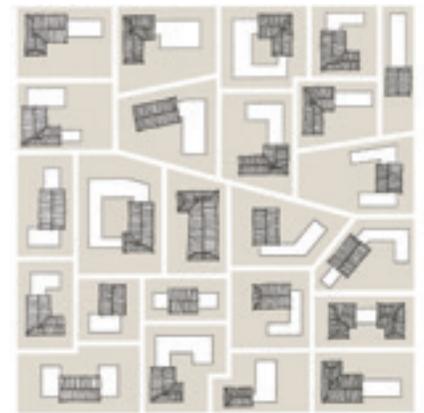
Site Plan



User-type Group



Unit Type by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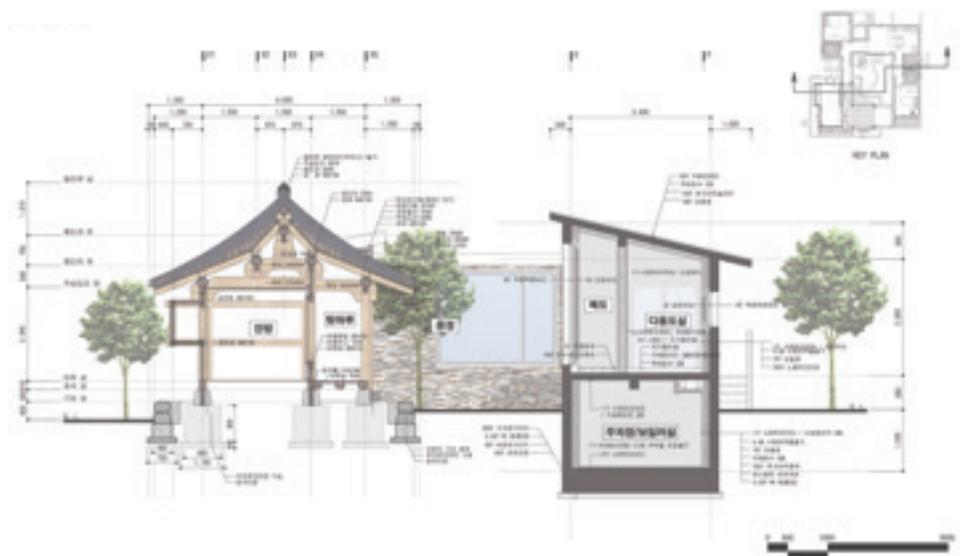
Han-Ok Feature



Floor Plan



Sec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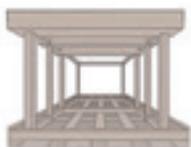
계획부문
은상
한진욱
강동우

Liaise between Tradition and Today

Space Organization



Han-Ok



Maru



Ondol



Modern Structure



Kitchen



Toilet

Planning of 21st Century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한국전통주택은 오랜 시간동안 이 땅에 순화된 집이다. 20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방식의 주거문화가 자리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웰빙, 에코, 친환경 등 시대적 이슈의 키워드가 어우러져 주거문화에서도 한국전통주택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통주택의 장점을 반영하면서 경제적이고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에 맞는 주택을 제안하는 것이 이번 설계의 목표이다.

Site | 해당 사이트는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택지개발지구 중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건폐율 50%의 대략 440m² 정도 되는 규모로 설정하였다. 본 설계의 건축면적은 약 120m² 정도이다.

Concept | 이번 작품은 한국전통주택과 현대기술의 융합에 있다. 전통방식의 부엌이나 화장실은 현대 생활방식에 맞지 않고, 내부를 현대시설로 갖춘다 하더라도 비경제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전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인 온돌과 마루는 전통방식으로 짓고, 화장실과 부엌 등 현대설비가 필요로 하는 공간은 현대방식으로 지어 둘을 융합시키는 것이 이번 작품의 개념이다.

Design | 건물의 형태는 중정을 두는 □자형부터 세대 인원수와 대지에 맞게 ㄷ자형, ㄱ자형, -자형 등 다양한 형태를 계획할 수 있다. 전통건축부분도 상황에 맞게 유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건축물의 지붕은 한옥과 마찬가지로 경사지붕을 채택하여 빗물이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계획하였다. 연결부분은 처마가 없는 맞배지붕의 양통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기둥과 콘크리트 사이에 용지판을 설치하여 기둥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선을 설치하여凹凸 방식으로 틈을 막아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차경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한 방과 마루에서는 한국전통주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부엌과 화장실에서는 현대시설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leva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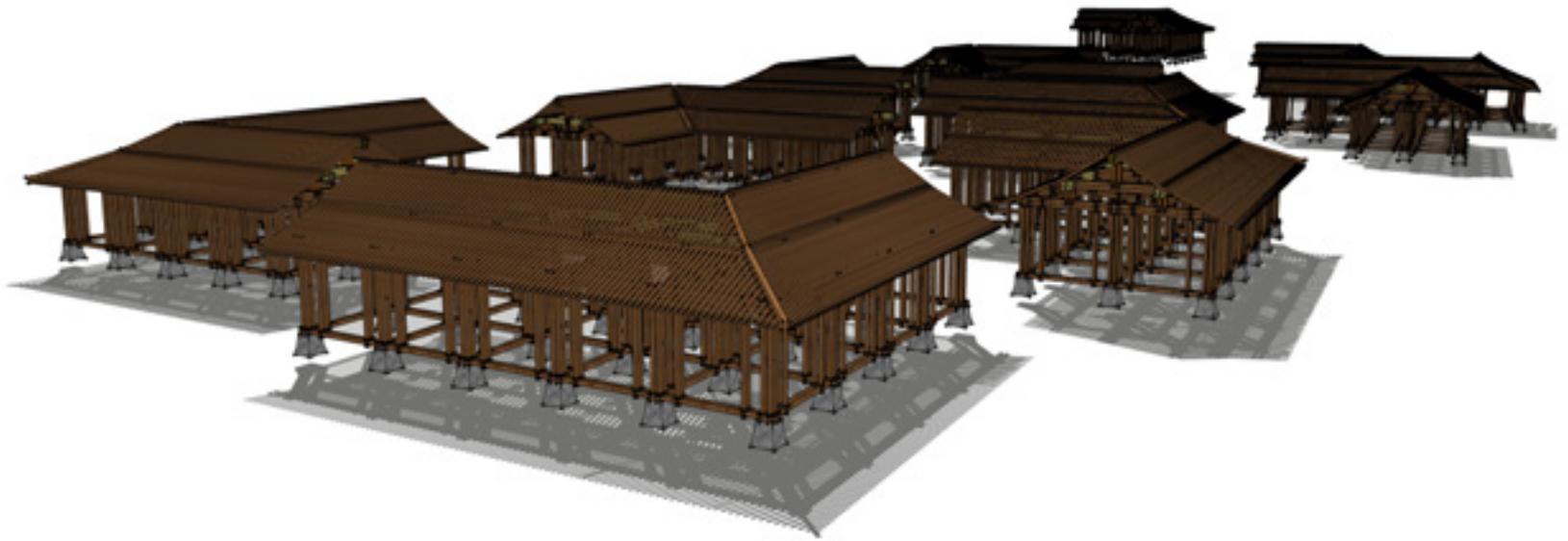
front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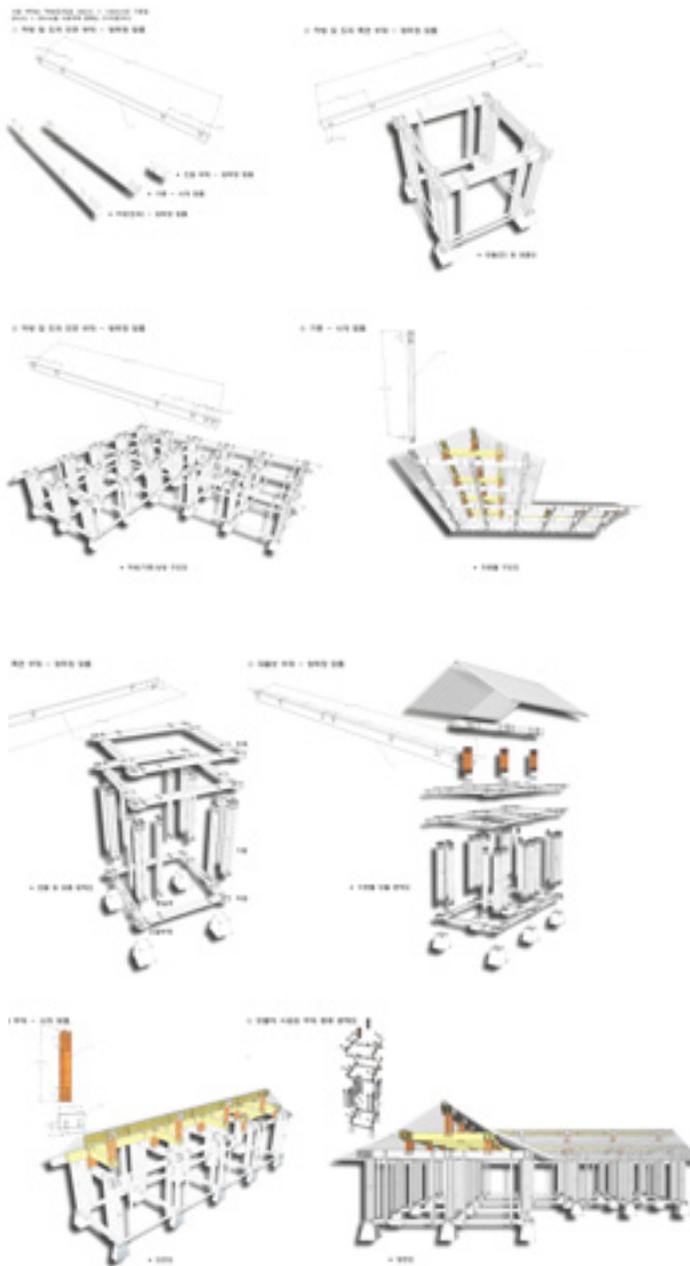
rear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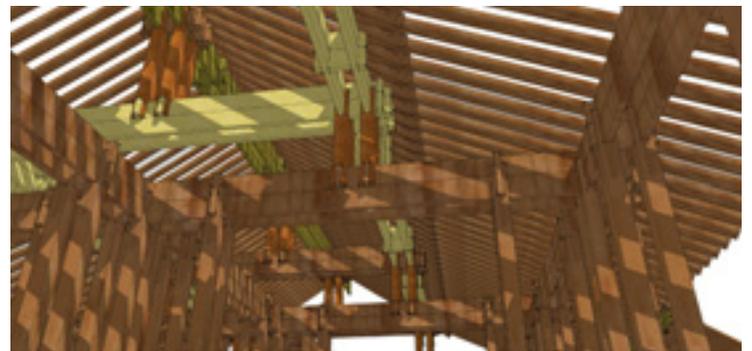




사용부재 및 모듈(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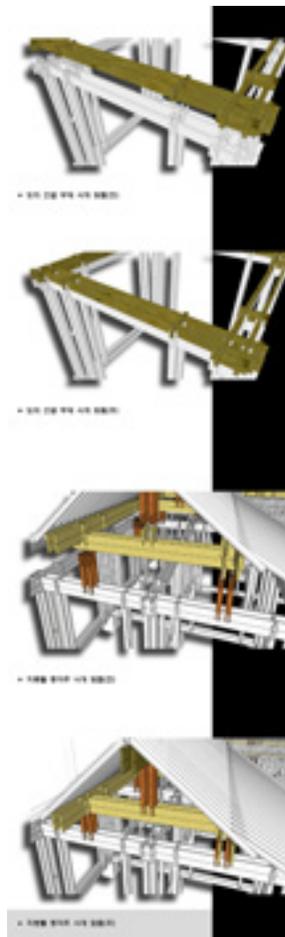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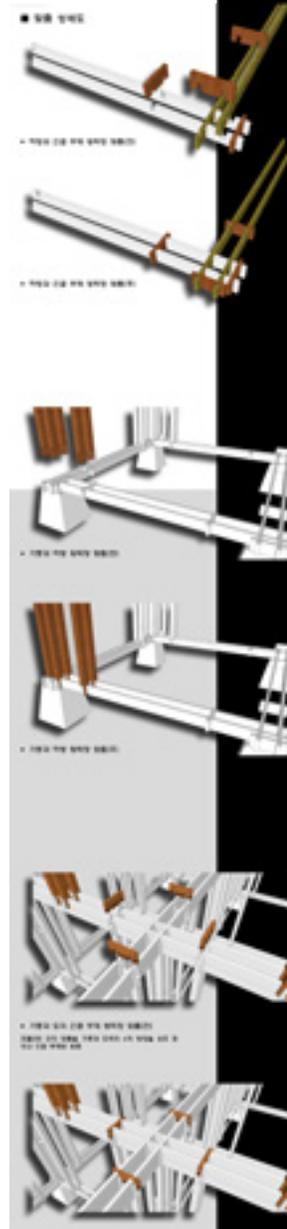


천정 구조도



계획부문
 동상 김성우
 김정준
 장지선
 금준희

혼자 짓는 한옥



모듈화된 부재를 전통맞춤으로 조립한 DIY 한옥

컨셉

기성목인 소경재(89mm × 89mm)를 사용하여 경량화하고, 인건비, 시공비, 재료비 등의 건축 비용을 줄인 후 모듈화된 DIY 자재를 전통 맞춤법으로 조립하는 “혼자 짓는 한옥”이 중심 테마이다. 한옥이 현대 건축문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을 고려한 대중화에 있다. 따라서 기성목인 소경재의 활용은 중량을 줄임으로서 장비와 사람을 줄이고, 재료비를 낮추며, 시공을 간편하게 만들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체적인 건축비를 낮출 수 있다.

아이디어 도출과정

전통 목구조 강의를 통하여 느낀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한옥을 건축하면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것이 한옥의 가능성을 여는 대중화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알았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 도출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첫째, 기성목인 소경재를 활용하여 재료를 경량화시킴으로서 혼자 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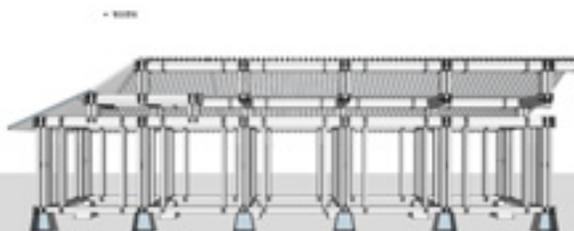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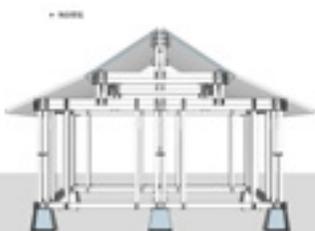
둘째, 소경재가 지닌 구조적인 취약성과 내구성을 우리의 전통 맞춤법인 왕찌장 맞춤, 사개 맞춤, 은장 맞춤 등을 활용하여 보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재의 종류를 단순화하여 모듈화된 DIY 한옥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이상의 모든 과정을 토대로 부재의 맞춤을 진행하면서 막연한 아이디어가 완전한 구조체로서 대중적 한옥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1.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수집
2. 적합한 재료의 선정과 맞춤법 구상
3.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 디테일 연구
4. 각 부재의 맞춤을 토대로 형성된 전체적인 한옥 이미지의 보완



우연한 만남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북촌 한옥 공동 주거 계획안



종로구 가회동 일대는 2000년대 들어 북촌경관과 주거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적 생활요구를 수용하면서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으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해가고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증진 시켜왔다. 북촌 가꾸기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2013년을 살고 있는 북촌주민들에게 현재 주거환경은 만족스러운가? “주거 환경은 거주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서 우리는 우연한 만남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북촌 한옥 공동 주거 계획안을 제안해본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았다.

1. 기존 북촌의 조밀하게 엮인 채와 채 사이의 닫힌 시야를 비워줌으로써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써의 시야적인 거주 환경의 변화를 제안해보았다.
2. 사이트 고유의 프로그램에 공용 마당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의 성격을 만들 수 있다. 기존의 주거형태는 현재에 맞게 재구성되고, 추가된 공용마당은 채와 채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한 이웃 간의 관계성 회복의 가능성을 제안해보았다.
3. 현재 북촌에서 방문객과 거주자들의 단절된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관계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해보았다.

여러 프로그램의 공존은 북촌 집합주거 공간의 다양성과 주거 생활의 활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과 여행자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혼합은 지금까지 닫혀있던 거주자들과 방문객과의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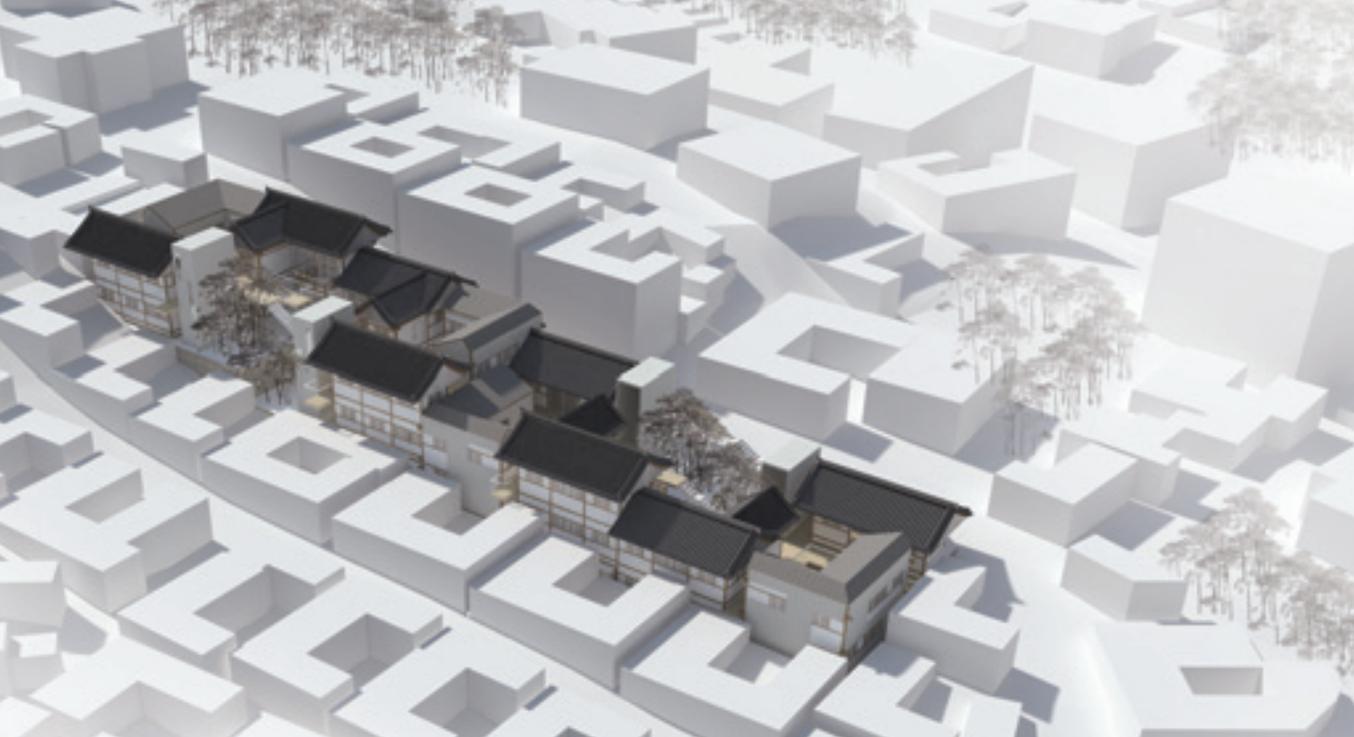
거대하게 오픈된 광장에서 사람들의 만남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그저 광장을 가진다고 해서 우연한 만남과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진입로와 길을 집합주거에 제시하고 인프라를 형성하여 그러한 기대를 좁은 길의 공간 속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Unit Plan



Floor Plan





계획부문
 동상
 백선협
 김슬기
 변준희
 국유민

계획부문

북촌, 관계를 회복하다

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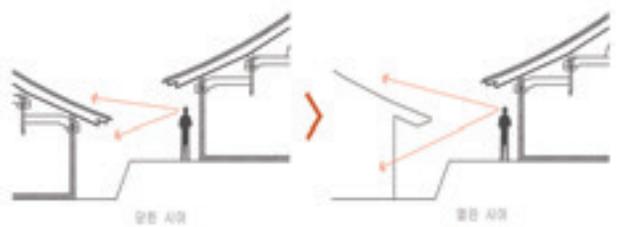
A-A' Section (Scale 1/300)



East Elevation (Scale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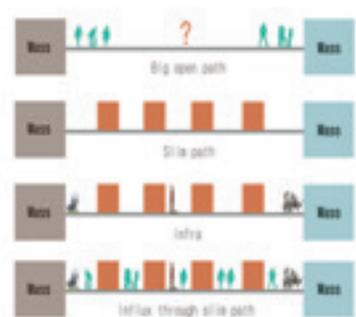
닫힌 시야에서 열린 시야로의 변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혼합



좁은 길을 통한 우연한 만남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북촌로
 11가길 일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1318.82m²
 57.35%
 106.28%

건축 규모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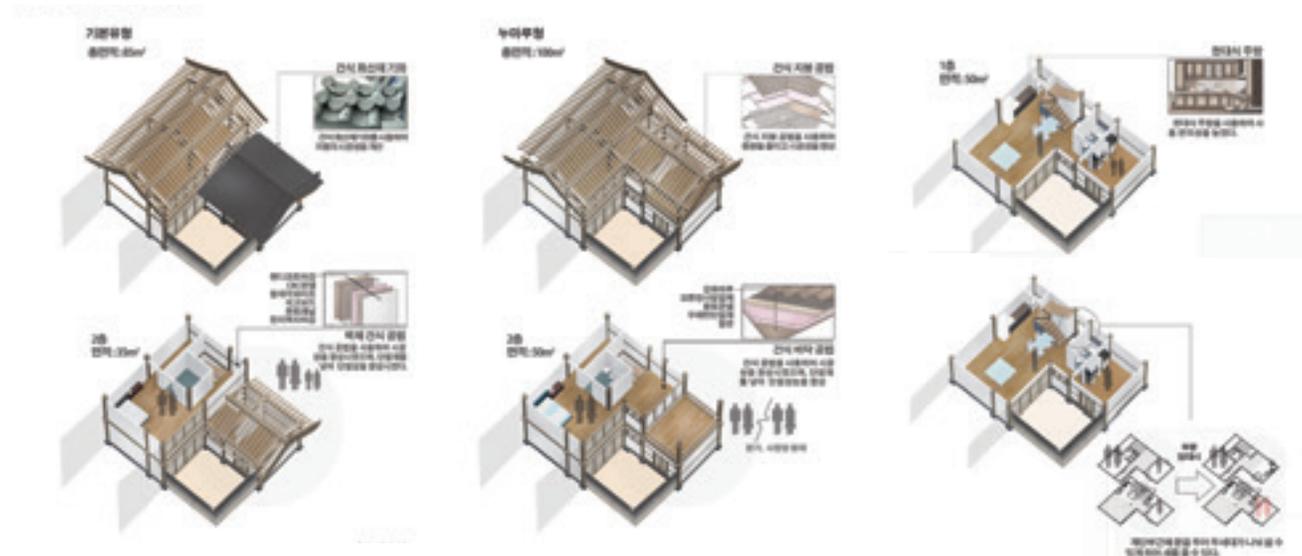
북촌, 관계를 회복하다



배치개념도 및 배치도



주거 유형별 평면 & 디자인 개념



현재의 건물들과 법적 건물



현재 도시의 건물들은 80%를 채우는데, 하지만 법적으로 건축을 하게 할 경우 건축면적은 80%를 채워가게 할 수 있는 편이 되어 있다.

생애의 효과



공동주택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생가적이며 일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삶에 대해 개방적이 될 것이다.

비밀감의 보람



사회의 정량성 3중원칙으로 설계된 건물에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로 설계된 건물은 비공개적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정보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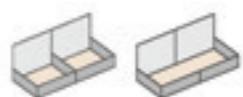
주택 사용은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단지개발과 주차장, 공용공간



한국의 문제점은 주차장의 부족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단지의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생활형 주차 내의 주차는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다.

선박적 마당의 공유



주택의 마당(공동체)을 공유하여 있는데, 이의 장을 주민간의 정서에 따라 단점을 보완하고 다 보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며 기억을 이어가는 한옥마을

서촌은 최근에 한옥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며 기억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재개발과 보존이 대립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의 문제점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한옥마을을 짓는 것을 최초의 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지역적 문제로서 법적인 건폐율은 60%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 대지의 건폐율은 80% 이상인 대지가 대부분으로서 현재의 용적률을 고려하면 다층으로 짓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주변 건물들이 1층한옥이 대부분이어서 주변 분위기를 고려, 2층으로 제한을 두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2층 한옥으로 지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비례감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례감을 맞벽건축으로서 보완하려 하였다.

두 번째로, 한옥 자체의 문제점으로서 주차장의 부재와 공용공간의 부족 문제, 유지 보수와 시공성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단지개발에서의 지하주차장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며, 단지개발로 인해 허물어지는 담장으로 공용공간을 확보하려 하였다. 또한, 단지개발을 함으로써 셉티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방법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주거 유형이 더욱 개방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지보수와 시공성의 문제는 현대적인 재료와 전통적인 공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유지보수와 시공성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정보와 유형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한옥마을로 지정 된지 오래지 않아 주민들은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주민 서로간의 정보의 교류로서 보완하며, 또한 이웃 간의 소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형의 부족 문제는 한옥의 가변적인 평면유형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유형을 제안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는 한옥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선택적인 마당의 공유로써 두 집이 마당을 공유하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계획부문
동상
이경섭
김민호
권연아
명민수

도시의 중심에서 한옥을 꿈꾸다

용도	주거
대지면적	1200m ²
건축면적	1398m ²
건폐율	60%
용적율	117%
가구수	15가구

모듈러 한옥 리노베이션, 더불어 살아가는 집

질문들

대가족을 위한 기존 한옥을 핵가족화된 삶에 맞추어 리노베이션, 자연을 벗 삼아 쾌적한 삶,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옥은? 한국을 나타내는 건축물로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늘 자리하고 있던 한옥을 사람들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한옥에서 우리 전통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목표 | 수요 대응형 다양성 확보

나만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 한옥은 대가족 시대에 맞추어 설계된 건축물이기에 현재의 핵가족화된 가족과 1인 주거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한옥 리노베이션을 위해, 모듈러공법의 적용을 고려하였다. 모듈러 공법은 비용절감과 시공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유연성 측면을 더욱 살리고 계획된 설계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요소별 분류체계를 갖춘 한옥 부재 라이브러리 구축 및 모듈 제작 체계를 적용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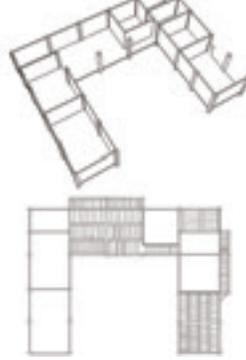
두 번째 목표 | 저렴하게 짓기

일반적인 건축비(만원/평)를 비교해볼 때, 아파트 300, 주택 450, 빌라 250 정도인 반면, 공사비를 낮춘 한옥인 은평 뉴타운 화경당의 경우도 720만원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의 해결안으로 노후된 한옥의 구조체를 기본 바탕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추가되는 부재는 한옥부재 라이브러리 정립을 통한 모듈화/대량생산 하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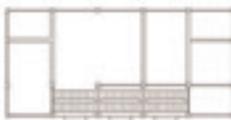
세 번째 목표 | 공사기간 단축

습식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적 제약 및 기타 여러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통한 모듈화를 통해서 프리패브 방식의 맞춤/결합을 통한 한옥으로 공사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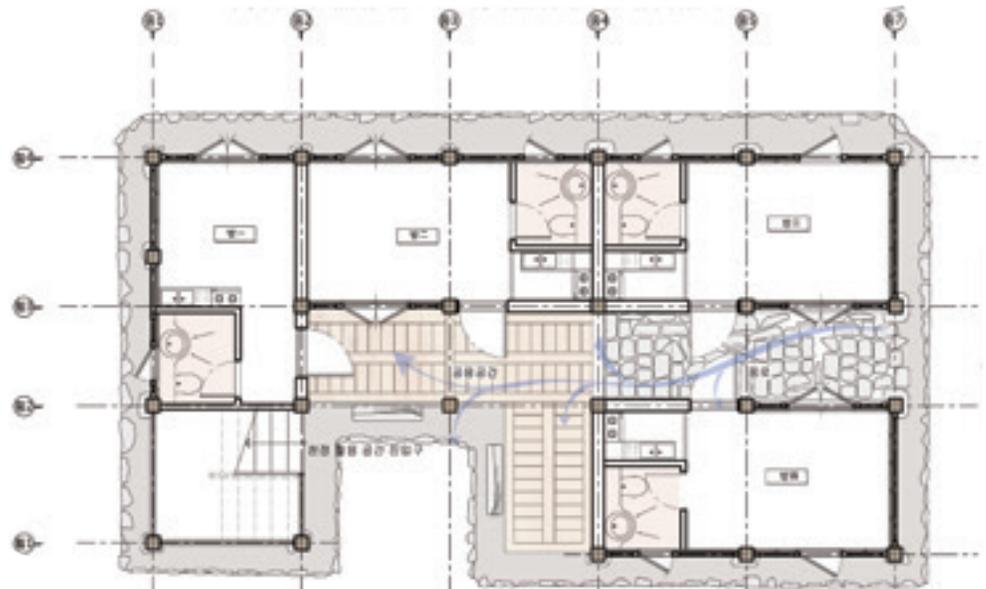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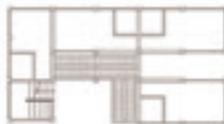
대가족 시대의 "칸"



핵가족 시대의 "칸"



1인 주거의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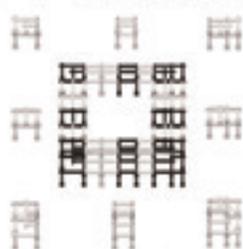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윤승희
김병준
김영수
김은혜

풍연성운 — 더블어 살아가는 집



구조부 조합을 통한 유닛의 생성



구조 유닛 조합을 통한 계획안



라이브리리 바탕의 한옥부재 모듈화



한옥 라이브리리 모듈체계 전개도



라이브리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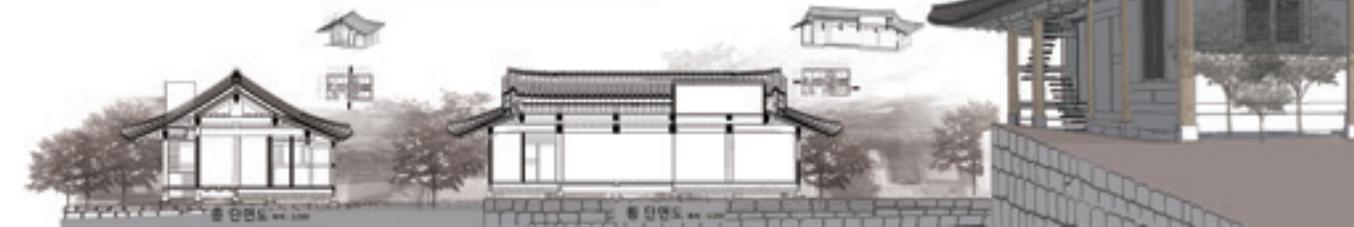
- 도리-결도리-주심도리
- 도리-결도리-주심도리
- 도리-결도리-중도리
- 보-대들보
- 보-대들보-주보갈구
- 보-대들보-주보갈구
- 보-중보
- 보-중보
- 보-후보
- 보-후보
- 보-후보
- 보-후보
- 보-지
- 보-지-04.대들보차단
- 보-지-05.중보차단
- 보-지-중물부분
- 수장중물차
- 갈머-귀갈머-발물갈
- 갈머-귀갈머-발물갈-주심갈머
- 갈머-귀갈머-발물갈-중물부분
- 갈머-귀갈머-발물갈-중물부분
- 갈머-귀갈머-발물갈-일목발물
- 갈머-귀갈머-발물갈-일목발물
- 갈머-귀갈머-일물갈
- 갈머-귀갈머-일물갈-주심갈머
- 갈머-귀갈머-일물갈-중갈머
- 갈머-귀갈머-일물갈-중물부분
- 갈머-귀갈머-일물갈-중물부분 1415
- 갈머-귀갈머-일물갈-중물부분 2915
- 갈머-귀갈머-일물갈-중물부분 3515
- 갈머-중갈머
- 갈머-중갈머
- 갈머-중갈머-주심갈머
- 갈머-중갈머-중갈머
- 판다공
- 판다공



내부 투시도



천정 활용안 2층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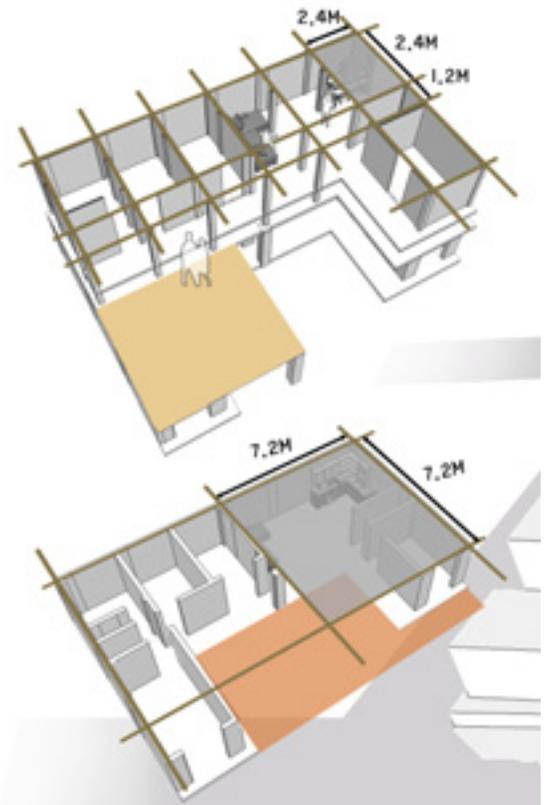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모듈 시스템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한옥에 물들길路



도시 속 옛길에 이웃한 한옥 주거단지 계획안

컨셉 & 디자인 프로세스

도시 주거의 고밀화 & 단절된 옛 일초석길



서양도 안속



한옥을 단순화함으로써 서양을 흡수하고, 전통적인 서양을 반영하여 서양적인 주거단지를 구현한다.



오늘날 도심주거는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기 보다는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거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가진 우리의 옛 마을과 한옥은 현재의 도심주거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옛길이 존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과 거주민을 고려하여 그 지역만의 문화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도심 주거 유형을 계획하였다.

고개에 형성되었던 옛 마을(배티마을)은 선형의 안길을 중심으로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던 곳이다. 그러한 안길(초석길)이 주거지의 골목길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대지는 소방도로에 의해 격자 블록으로 되면서 옛길이 끊어지고 점점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단절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선형으로 구비된 길을 따라 한옥을 배치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외부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하면서 길(초석길)을 따라 블록을 연결하고 각 블록안에서도 형성되는 커뮤니티를 계획하였다.

먼저, 현재 북동사면으로 형성된 대지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남쪽의 낮은 레벨까지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선형 배치를 하였다. 다음으로, 옛길(초석길)과 각 블록 내의 커뮤니티 가로로 연결하여 블록 안에서만 한정된 이웃이 아니라, 초석길을 따라 마을들을 엮어줄 수 있는 한옥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저층에 'ㄷ'자, 'L'자의 한옥 평면의 마당을 커뮤니티 가로와 연결하고, 중층의 마당을 슬로프와 계단을 통해 연결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을 계획한다. 이것은 거주자의 동선을 유도하여 단지 내 이웃간의 소통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한옥의 안마당뿐만 아니라, 뒷마당도 계획하여 옛길(초석길)과 시선이 교차되는 개방된 단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한옥에서 바람길을 고려한 마루와 마당을 계획하고자 한옥구조의 모듈시스템을 현대적인 주거형태로 접목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한옥과 어울리는 형태의 현대적인 커뮤니티 시설(도서관, 실내놀이터, 운동시설)들로 거주자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편의를 고려하였다.

숨쉬는 양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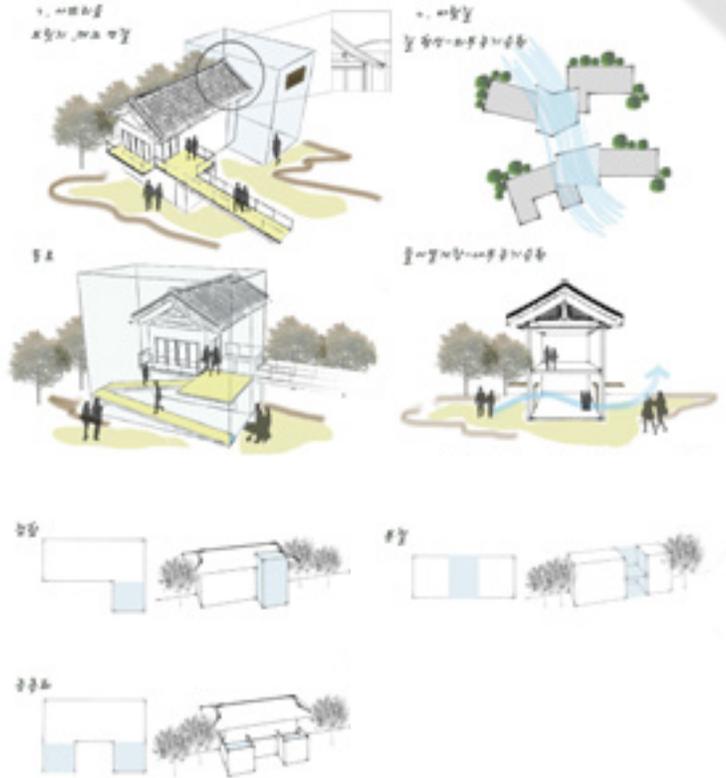
한옥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려 하였다. 한옥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한옥의 자연스런 채광과 통풍을 주의 깊게 살폈고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곳이 바로 청주 탑동에 위치한 양달말이라는 조그마한 옛 마을이다. 이곳은 마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햇빛이 잘 들어서고 남동사면에 위치한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이 활용되기에 적합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유지되어있던 한옥들의 배치와 형태를 참고하여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하였다.

기존의 한옥은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만 냉난방에 취약함을 보인다. 하지만 앞마당과 뒷마루의 온도차를 이용해 냉방을 해결하고 온돌을 이용해 난방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중층화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생활에 전통 그대로의 양식은 불편함을 보인다. 이러한 장단점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유리'라는 재료를 추가 하여 변화를 시도 하였다. 목재를 사용하되 마루 바깥쪽에 유리를 사용하여 냉난방의 효율을 끌어 올리고 대지의 효율을 위한 중층화를 RC구조와 목구조를 결합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물을 사용하는 공간인 화장실과 주방은 RC구조로 통합하여 목재의 취약점인 물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한옥의 위계를 받아들여 마당과 대청마루 뒷마당의 공간까지 유리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오픈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 한옥의 장점인 자연스러운 바람을 끌어들었다. 주거단지 사이사이에 아뜨리움을 결합하는 구조와 대지 사이사이에 소공원과 식재를 심어 대지 전체의 기온차를 형성하여 통풍을 한옥 하나에 한정되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대지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바람길을 조성하였다. 주거동 중앙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2층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대면을 통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하였다.

입단면도



컨셉



배치도



입선
윤주용
김민지
이현정

햇볕길 바람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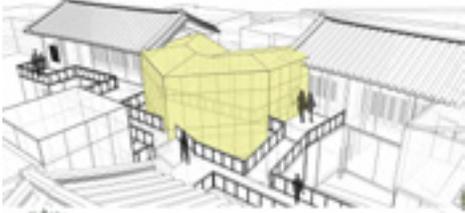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 서쪽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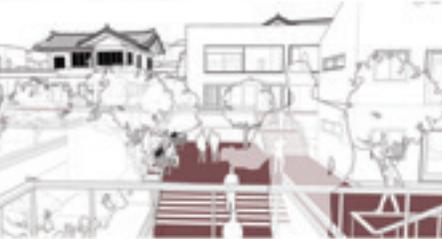
배치도 SCALE : 1/500

윤적률: 80% 건축면적: 1863㎡
 건폐율: 33% 세대수: 28세대
 대지면적: 5500㎡ 세대전용면적: 67
 면적비: 4400㎡ 층수: 지하1층지상2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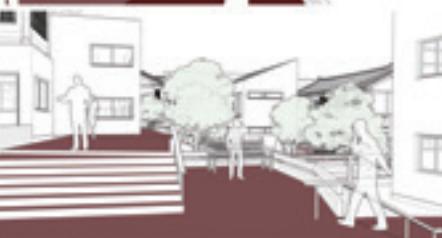
4층까지 계획으로 정해진 서장은 중간에 끊어면서 서각적 공간감을 나타내며
 중간에 4층의 연속성을 통해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4층까지 중간에 계획이 해제되면서 나타나는 골목공간 - 전경개방권 - 서각공간은
 비율과 확률로 유기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방 복거리로 연결적인 공간을 비율과 확률의 서각에서 서각적 길거림과 비율감을
 제시해 각 공간들을 서각적으로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한다.



4층까지 끊어 끊어는 비율의 절제 /
 1층 20여곳까지의 방격을 갖는다

4층까지 끊어 끊어는 비율의 절제 /
 1층 20여곳까지의 방격을 갖는다

평면도



1층평면도 SCALE 1/500



2층평면도 SCALE 1/500

측면도



남측면도 SCALE 1/500

계획부문
입선
최감용
이효원
남영준

‘ㄱ’하고 싶은 마을

경사지에서 풀어나가는 한옥 마을의 공간 가능성

과거 한옥은 자연과 어우러지며 여유롭고 고즈넉한 삶의 형태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태는 변화하였고 네모박스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것은 현대사회의 단절과 삭막함을 가져왔다. 청주 옛마을 호두나무거리마을은 옛날 커뮤니티가 활발하던 모습과 달리 현재는 과거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는 마을이다. 우리는 이 옛 마을을 분석하여 이 마을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옥의 평면을 사용하여 옛모습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전통한옥을 토대로 현대사회에 맞도록 재해석한 한옥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려 한다. 우선 이 마을은 남서사면의 경사지 지형을 가지고 있고 남향을 향해 ‘ㄱ’자형 배치를 취하고 있는 마을이다. 우리는 이 마을의 기존의 평면 형태를 간직하여 한옥의 ‘ㄱ’자형 평면을 능선에 따라 엮어놓아 ‘ㄱ’자형 평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적공간인 마당과, 각 주호 사이에 형성되는 공용마당을 통해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동선계획으로는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옛길을 손대지 않고 옛 길을 통해 사람들이 진입하게 하고, 또 주호진입을 위해 형성된 막다른 골목 끝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한다. 차량진입은 지하주차계획과 지상주차계획을 통해 보차분리를 시키고, 등고도 기존 등고를 그대로 두고 이 등고로 인해 생기는 단차를 수직 동선으로 연결하며 수직 동선을 처리한 부분으로 인해 생기는 썸시 공간에는 공용공간을 계획하여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한다. 이로써 마을 내부의 단절된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과거의 모습과 삶의 형태를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마을의 옛 특색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획안을 낸다.

배치계획



한옥모듈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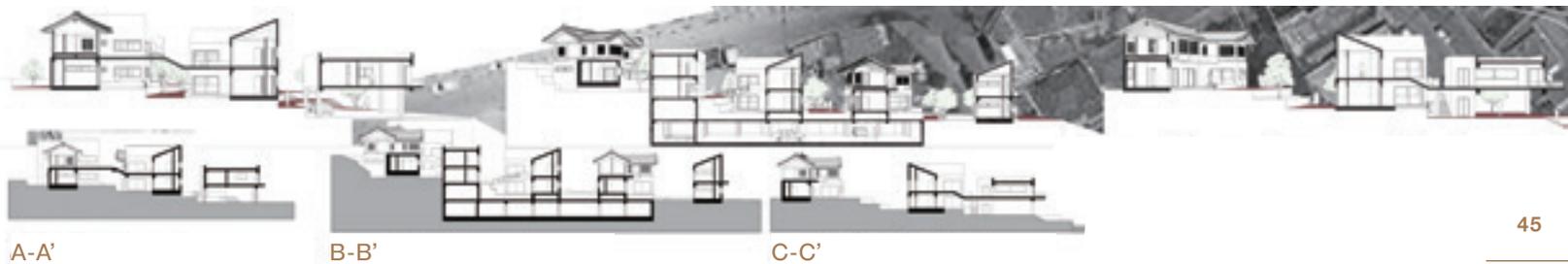
한옥의 증축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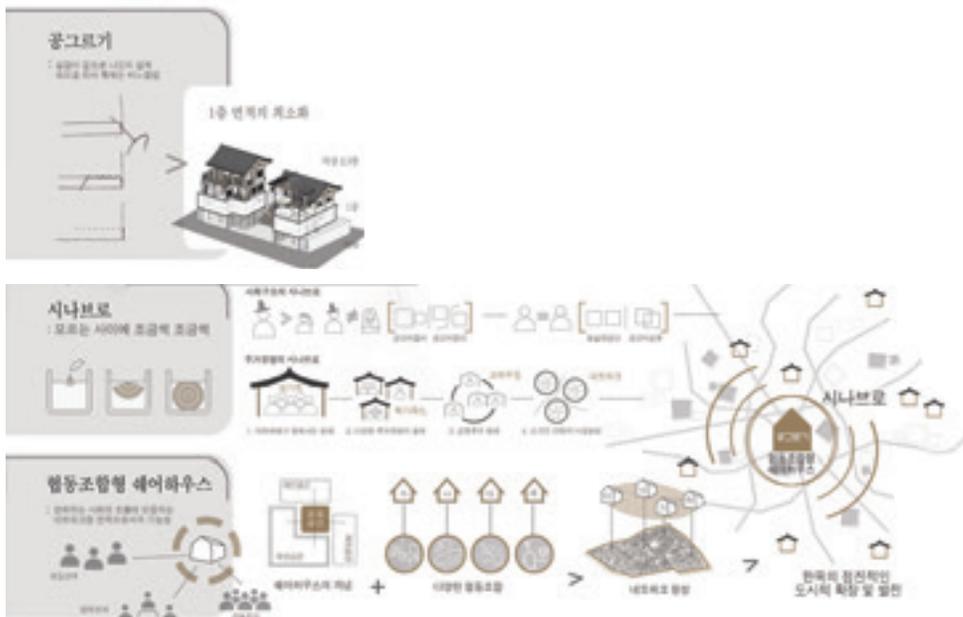


단면도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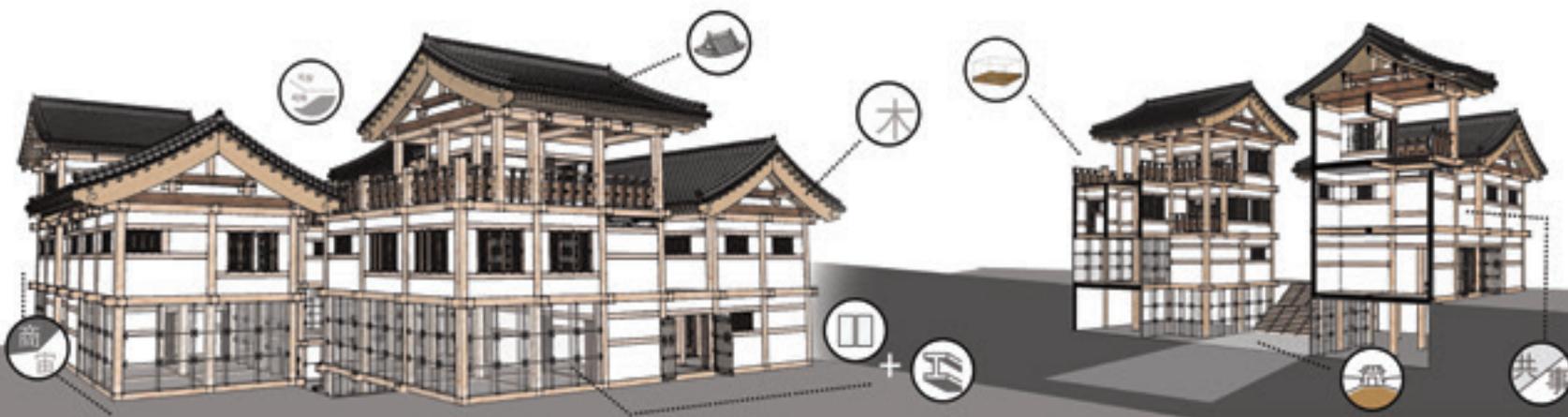
평면도



프로세스



측면도





한땀한땀

시간을 대하는 한옥의 자세는 결코 빠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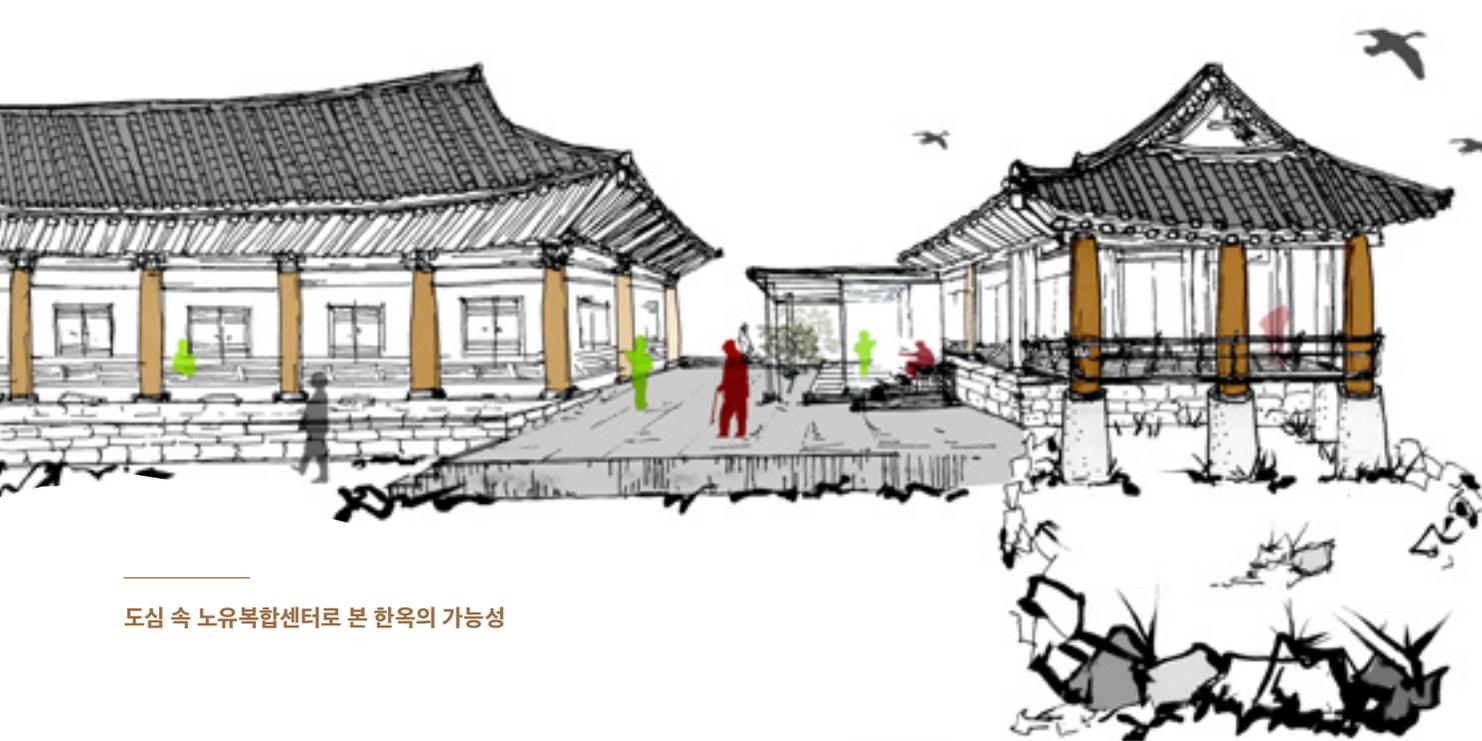
‘한옥이 보편화 되던 시절로부터 100여년, 21세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옥의 가능성을 찾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시작하였다. 과거의 흙, 나무, 가구식 구조라는 변화무쌍한 한옥의 재료와 구조형태는 현재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옥의 근본적인 뿌리가 될 것이며, 다양한 미래의 생활 양식과 재료들이 서서히 한옥을 변화시켜줄 때, 한옥은 자연스럽게 미래로 전해질 것이다.

이번작품에서 우리는 공그르기*실땀이 걸로 나오지 않게 속으로 떠서 꿰매는 바느질법 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한옥의 가능성을 찾았다.

먼저 첫 번째 과거 상하, 남녀 사람의 구분을 통해 나누어지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제는 상하와 남녀의 구분이 사라져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보다 실용적이며 컴팩트한 공간이 필요하다. 한옥의 조립식 목구조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그때마다 공간의 쓰임새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을 제안한다. 공간의 수직화 속에서 마당을 지하로, 마루를 3층으로 이동하며 이를 건물 내부에서 이를 이어줄 공그르는 공간의 생성과 탈부착식의 내부 벽체는 자유로운 사용자에게 따라 자유롭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을 생성하였다.

두 번째, 과거 대가족의 형태에서 현재는 핵가족화 미래에는 딩크족과 싱글족,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용도가 나타나며 코하우징과 셰어하우스라는 새로운 용도형태에 대한 접근이다. 또한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되며 미래에는 업무, 상업, 작업시설을 공유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발전할 것이며, 우리는 협동조합형 셰어하우스를 제시한다.

세 번째, 과거에는 기술발달의 미비로 사용되지 못했던 재료들을 현대에서는 사용하며,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철, 콘크리트의 사용이다. 또한 과거의 새로운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양날의 검이 되어 단점을 남기기도 한다. 복촌의 한옥마을은 근대식 한옥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반면 서촌은 보존과 발전의 갈등 속에서 정체되어 서촌에서 폐가인 기와집을 쉽게 볼 수 있다. 천천히, 서서히 변화하는, 공간과 용도, 재료의 내부 속 변화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바느질이 비워진 서촌을 공그르며 자리를 잡을 것이고, 한옥의 새로운 정체성이 다시금 생길 것이며,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녹아들어 우리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보편화된 한옥의 시나브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도심 속 노유복합센터로 본 한옥의 가능성

전통 한옥은 대부분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주거기능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고, 한옥은 비싸고 살기 불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변화해 가는 삶만큼이나 그 삶의 요구가 반영된 한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통적 토대 위에 합리적이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노유복합센터를 제안한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을 맡길 시설이 필요하고, 노인들은 적적함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만든다면 아이에게는 예의를 배울 기회이고 노인들 또한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연친화적 건축인 한옥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엔 어릴 적 고향의 향수를 추억하게 한다.

대지는 광주광역시 경관개선 프로젝트 중 하나인 푸른길을 맞이하는 대지를 선정했다. 푸른길은 과거 철도였던 폐선 부지를 녹지로 개선시킨 곳이다. 대지 주변은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비재개발지구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재개발지역(아파트)이 혼재해 있어 노유복합센터가 들어서기에 알맞다.

노유복합시설에서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축적 장치를 도입하고, 교류를 염두에 둔 공유공간을 계획했다. 삼각형의 대지 내에 유아시설과 노인시설 두 개의 매스를 배치하고, 두 매스를 연결하는 판들을 끼워 넣었다. 마루만큼의 단차이가 나게 ㄷ자 형으로 바닥 판을 끼워 넣어 한옥과 어우러지게 한국적으로 디자인하려 노력했다. 이곳에서 운동하는 노인들과의 시각적 교류, 동선이 겹침으로써 발생하는 우발적 교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가 발생하게 된다. 세대 간 교류에 의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 폭 넓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키울 수 있다.

유아시설의 공부방에는 한옥의 좌식생활을 생각하여 바닥판을 일부 down시켜 책상으로 쓰게끔 공간을 디자인했고, 놀이방은 한옥이 아담한 휴먼스케일의 공간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인체치수에 맞춘 책장 겸 놀이공간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다락을 디자인했다.

노인시설은 공용공간이 시각적으로 내다보이는 기능회복실을 뒤서 시각적 교류가 일어나게 했고 노인정에서는 푸른길이 내려다보이는 누마루를 만들어 자연을 바라보며 쉴 수 있게 하였다.

나무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자양분을 제공하는 뿌리와 광합성으로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는 새싹과 같은 관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단면도
SCALE 1:150

계획부문
입선
이호준
신동욱
배지윤

뿌리와 새싹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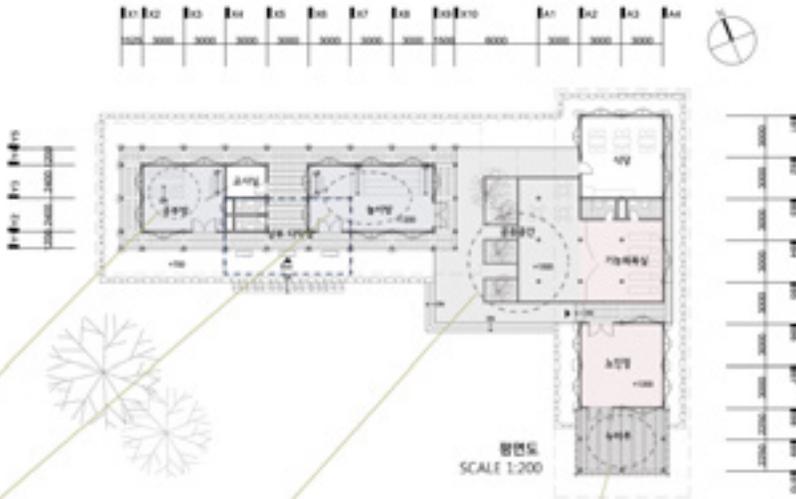
자연친화적 건축은 건축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머물 적고할의 장수를 유지하게한다. 또한 건축의 공간은 편안하고 무거운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되기 위해 적합하다. 노인은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아이는 노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휴먼스케일과 전통한옥의정을 보여준다



평면도
SCALE 1:200



어이와 노인이 만나는 공간이다



노인과 노년세대이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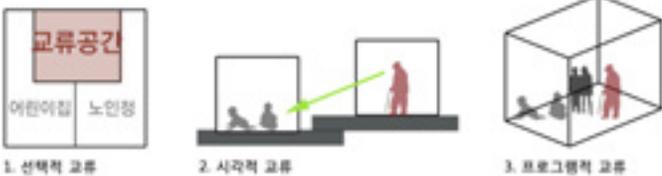


· SITE를 중심으로 위쪽 대지는 재개발 지역으로 주로 고층 아파트, 초등학교, 유치원이 자리잡고 있는 반면, 아래쪽은 비재개발 지역으로 판잣집이 주를 이루어 서로 단절되어 있다.



· 재개발 된 지역은 어르리가 생김으로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기존의 것을 추구하던 노부부, 노인들은 비재개발 지역에 계속 머무르며 서로 단절되어 있다.

Proposal



1. 선택적 교류

2. 시각적 교류

3. 프로그램적 교류

Space Concept



SPACE CONCEPT

대지 내 두개의 액세스를 배치, 노인들을 위한 공간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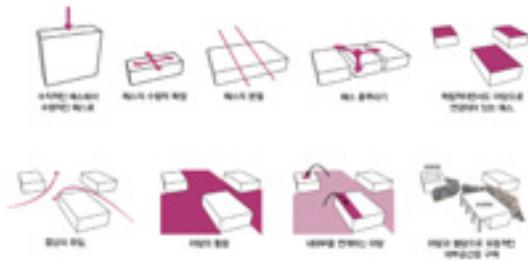
각 공간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들 부여(공부방, 놀이방, 노인정 등)

두 액세스를 연결하는 또 다른 액세스 배치, 노인과 유아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기능 부대로 거회, 선택적 교류 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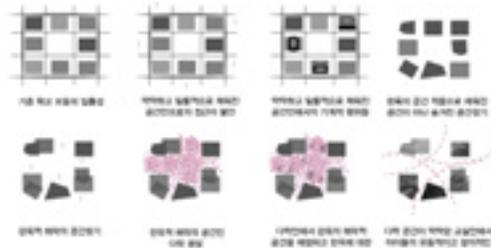


횡단면도
SCALE 1:150

체 나누기



공간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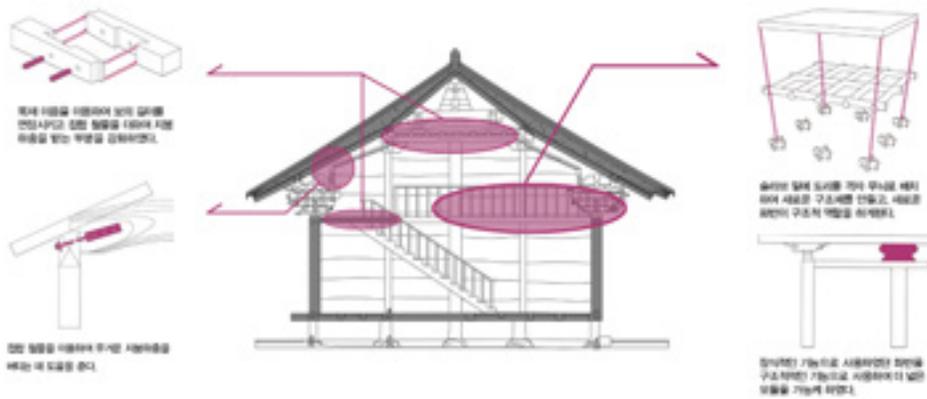


한옥의 숨겨진 해학: 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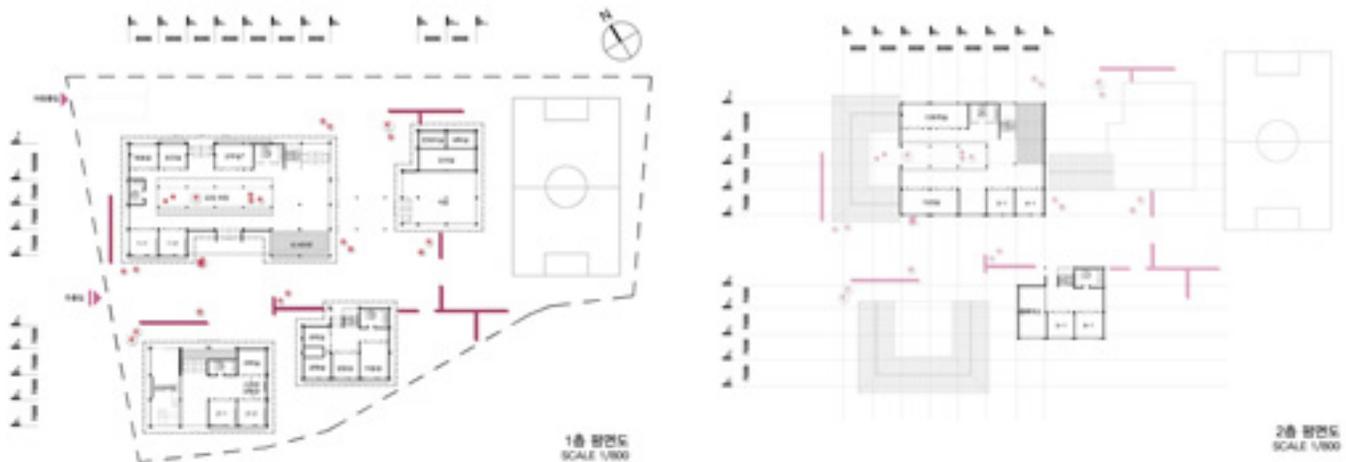
기존 한옥의 지붕구조부에 한 공간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이 공간, 다락으로 이용하였다. 여자가 도복을 정리하여주고 달린한 아이들의 한옥이 가지는 반찬의 공간이자 세상의 공간이며, 한옥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다락의 개념과는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는 한옥의 다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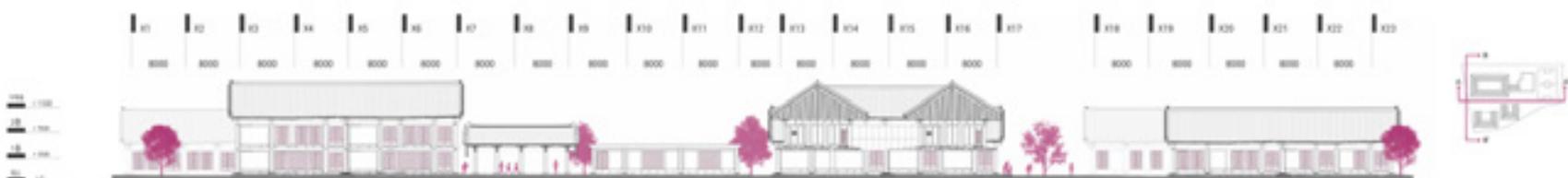
단면 구조 상세도



평면도



입면도



계획부문
입선
이영민
박유일
이건민
조선진

해학孩學 아이 해, 배울 학



한옥 공간의 해학^{해학}을 이용한 한옥형 초등학교 제안

한옥에 대한 단상

한옥을 공공건물에 적용하는 등 주거공간을 넘어 다양한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현대 건축물의 한옥화를 통해 미래 한옥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학교와 한옥, 한옥과 아이들

한옥의 가능성, 즉 한옥의 미래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사용자가 될 것이다. 때문에 한옥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가까이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한옥형 학교가 그 가능성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이라고 여겨진다. 한옥에 대한 경험과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한옥이 미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지읽기

대지는 외암리 민속마을에 인접한 학교부지이다. 타 지역의 아이들보다 쉽게 한옥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지를 선정 하였으나 학교 내에서 한옥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민속마을의 주민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한 주거가 대부분이었다. 주민들에게는 한옥형 학교라는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민속마을과도 연계되어 대지가 갖는 문제점들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옥의 해학, 해학의 공간; 다락

조상들은 기존 한옥의 지붕구조부에 생기는 빈 공간을 다락으로 이용하였다. 정리되어있고 엄격한 이미지의 한옥이 가지는 반전과 해학의 공간이며, 현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다락의 개념과는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공간이다. 현대 교육시설의 트렌드는 교실 안에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현대 교육시설의 요구사항을 풀기 위해 다락을 활용하여 학교의 딱딱한 모듈 안에서 아이들에게 유동적이고 신나는 공간으로 되돌려 주고자 한다. 다락을 적용할 때 지붕 구조부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아이들이 한옥지붕구조의 형태적 미와 견고함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숨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공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한옥과 접목된 교실의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고 한옥의 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과 재미를 유도할 수 있다.

구조계획

한옥의 작은 모듈을 학교처럼 기본 모듈이 8x8인 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구조계획의 중점이었다. 학교의 8x8 교실 모듈을 한옥의 목구조로 적용하기 위해 목재 이음을 이용하여 보의 길이를 연장시키고 접합 철물을 더하여 무거워지는 지붕하중을 받는 부분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장식적인 기능으로 사용을 해왔던 한옥의 화반을 구조적인 기능으로써 활용하는 등 기존 목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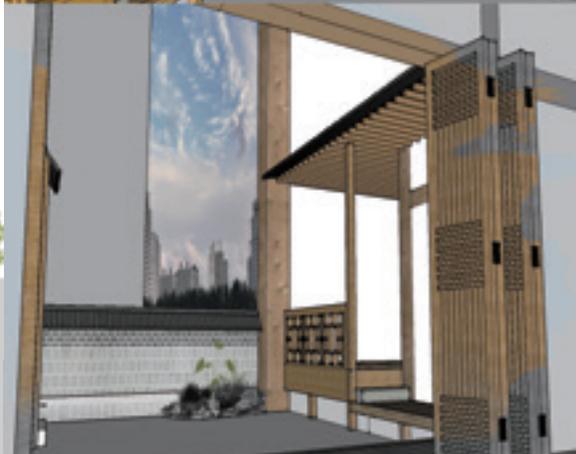
입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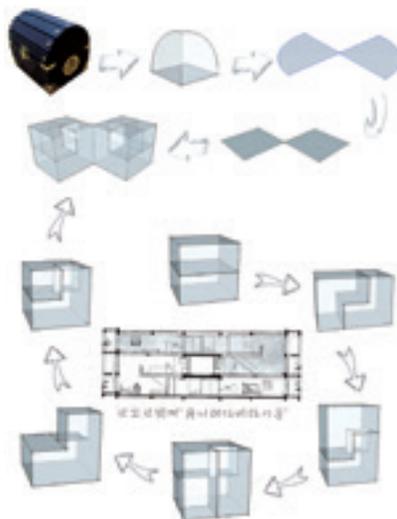
陰陽五行 음양오행



한옥 아파트의 가능성

현재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의 영향으로 한국가족은 매우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는 교육 참여 증가, 가족가치관의 퇴색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등 초래하였다. 특히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자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미혼 및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가족변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로인해 가족여가활동보다는 개인여가 활동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가족,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규모와 가구 구조의 변동은 가족가치관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 가치관의 변동은 사회경제적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주거주택의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비율은 증가했지만, 확대가족 혹은 직계가족의 가치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족규모 변화와 1인 또는 2인 가구증가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주로 저층으로 지어지는 한옥을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접목시키면서 한옥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옥 고유의 삶과 현재의 삶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한옥 아파트’는 기존에 계획 중인 한옥아파트나 일반아파트와 차별성을 주기 위해 첫 번째로 외부 공간이 빈약한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마당’을 통해 집에 들어가도록 하며 손님접대 또는 서재로 ‘누마루’라는 휴식공간을 주었다. 그리고 대청마루를 ‘거실’이라는 공간으로 재해석하며 과거 대청마루(거실)와 떨어져있던 부엌의 위치를 현대에 맞게 대청마루(거실)와 구분 없이 계획하였다. 두 번째로는 가족규모와 가구구조의 변동,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규모가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3인 이하의 ‘소가족형’과 4인 이상의 ‘대가족형’ 세대를 계획하였다.

공간 계획





‘소통’의 매개체,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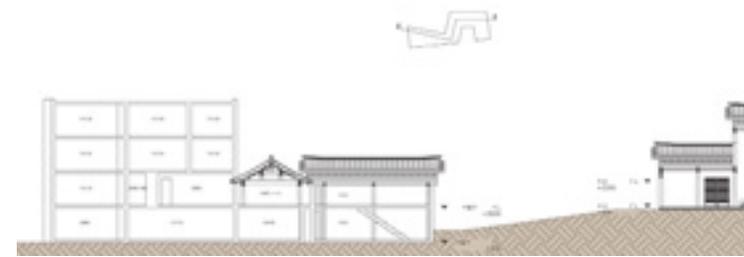
수많은 요소들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한옥의 매력이 한옥이 가진 가장 큰 가능성이다. 우리 대지는 보수동 책방 골목으로 6.25 사변이후 당시 미군들이 보던 헌 잡지와 학생들의 헌 참고서 등을 끌어 모아 파는 헌책방이 생긴 것이 시초로 어려운 삶을 사는 피난민이 와서 싼 가격의 헌 책을 구하던 곳이다. 5평 남짓한 공간부터 60여 평 크기의 책방들이 150m 가량 늘어서 있다. 한참 전성기에는 하루 3000여명의 고객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600명도 되지 않는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책방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골목골목에 쌓인 책을 보면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이 대지를 택한 것 이유는 지금 이 대지는 과거와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지만 현재와는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드는 규모와 무분별한 개발로 책방골목이 점점 쇠퇴하고 변질되어 사라져가는 모습이었다. 그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것은 바로 한옥의 가능성이었다.

한옥이란 우리의 역사의 늘 일부분으로써 우리의 숨결이자 혼이다. 한옥을 보면 느껴지는 정겨움과 향수는 책방골목의 모든 요소와 잘 어울렸다. 골목골목을 만들어 내는 한옥들의 배치와 그 골목에 쌓여있는 책까지 그 풍경은 서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맥락을 만들었다. 한옥의 전체적인 배치를 반영하여 이 골목에 기승전결을, 스토리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한옥의 분합문과 마루를 통해 셔터를 내리는 답답한 현대식 건물의 책방에서 벗어났다. 너무 오래되어 낡은 건물만 있던 이곳의 분위기가 새로운 한옥이 들어감으로써 골목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이다. 아예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 들어간다면 이 골목의 정서를 해쳤을 것이다. 그러나 한옥이 주는 느낌으로 우리는 이 골목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골목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한옥은 ‘오래된 새로움’이라 할 수 있다. 한옥 그 자체는 오래된 것이지만 이 대지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었다. 헌책과 새 책이 공존하는 이 골목에 한옥과 현대적 건물 또한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한옥형태와 새로운 한옥형태가 현대적 건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골목을 만들어 골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투시도



단면도



계획부문
입선
이수진
김지연
이유진

한옥 사이 책을 거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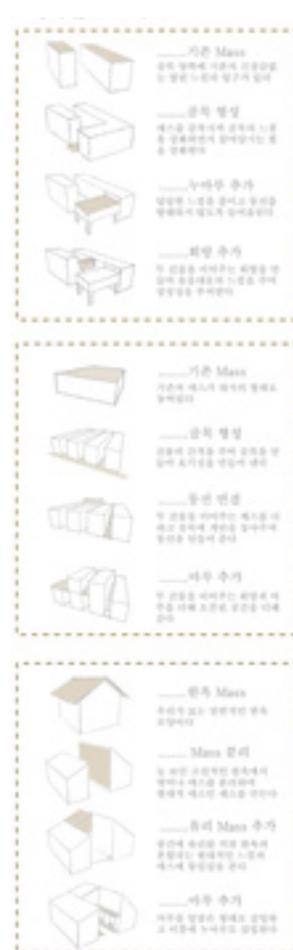
투시도



평면도



디자인 프로세스





현대적 공간의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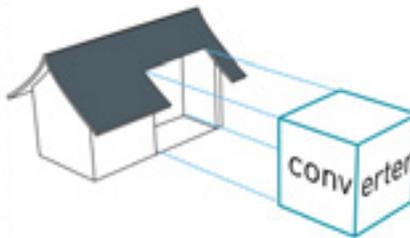
우리는 더 이상 전통에 살고 있지 않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통보다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현대식의 공간 구성방식에 의해 살아가고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한국만의 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옛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옛것 중 하나 안에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이 있다. 그러나 한옥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현대인이 원하는 것과 한옥이 제공하는 것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옥 그대로를 이어가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는 두 요소의 만족점을 담아 낼 수 있는 요소를 기존의 한옥의 방식에 추가, 삽입을 통해 전통 속에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담아내려한다.

우리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들어선 다세대 가구주택으로 인한 한옥의 수 감소로 한옥 마을의 특징이 사라져가는 북촌 한옥마을에 간이 도서관, 영화관, 모임공간, 노인정 등을 통하여 전통 속에서 좀 더 친숙하게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효과적으로 제시를 한다. 또 이러한 문화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옥 속에서 현대 생활 패턴을 체험하게 되면서 한옥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함을 높여준다.

이에 우리는 한옥에서 현대인이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현대인이 머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공간 사이를 중간영역이라고 설정하고 그 곳에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converter를 삽입하여 현대인이 한옥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인의 한옥에 대한 접근성, 친근감 유도를 위하여 converter의 파사드는 가진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였고, 색감에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이질적이지 않도록 한옥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Converter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색상, 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현대인들의 공간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고, 그 안에는 전통적 요소 등을 넣어줌으로써 현대적 공간 안에서 전통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어 전통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변화를 유도하였다.

컨셉

한옥에서 현대인이 어색하거나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 공간과 현대인이 머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공간 사이를 중간 영역이라고 설정하여 그곳에 converter를 삽입하여 현대인에게 친숙 적응에 도움을 준다.



- Skin plan
재료를 현대인에게 익숙한 현대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색상은 한옥의 가진 고유의 색상을 통해 한옥에 대해 접근성과 친근감, 조화를 유도한다.



- Inner element
Converter 안에는 전통적 요소를 넣어줌으로써 익숙한 현대적 공간 안에서 전통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여 전통적 공간과 요소 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변화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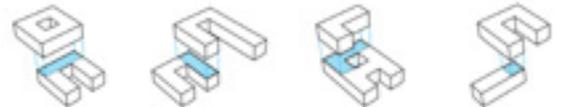
프로세스

Step. 1 한옥 + converter



Step. 3 영역 확장

경사지의 좁은 단지 속에서 필요에 의해 한옥의 규모를 증합의 방법을 통하여 확장시킨다.



Step up. 2 한옥 기둥 간격 + converter 기둥 간격

converter의 기둥을 한옥의 기둥과 같은 간격으로 맞춰줌으로써 어질감이 덜하게 된다.

Strategy

1. 모임공간



- 방과 마당 사이 - 지붕과 옥상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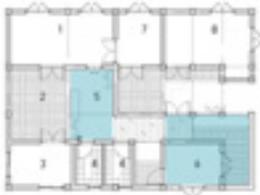
converter를 통해 실내에서 마당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한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붕을 통해 내려다 보는 경관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모임 공간에는 전통적인 공간감과 현대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계획부문
입선
박준석
진승률
김소정

담장으로 들어온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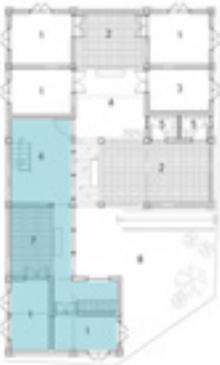


Plan



- 1. 진입 2. 대청 좌측 3. 부엌 4. 화장실
- 5. 전시장 6. 손님실 7. 직문 앞 8. 잔방

<요양방 1층 평면도>



<요양방 2층 평면도>



- 1. 부엌방 4. 코어
- 2. 대청 좌측 7. 보일러방
- 3. 대청 우측 8. 화장실
- 4. 요양방 앞 9. 직문 앞
- 5. 화장실

<전시실 2층 평면도>



- 1. 전시방
- 2. 전시방 앞
- 3. 화장실
- 4. 전시장 앞

<도서관 2층 평면도>



- 1. 전시장
- 2. 대청방
- 3. 화장실
- 4. 대청방 앞
- 5. 대청방 옆
- 6. 코어
- 7. 방담방담
- 8. 입출방
- 9. 손님실

2. 노인정

- 방과 마당 사이



방과 마당사이를 공간영역으로 설정하고 converter를 설치하여 내부에서 방과 마당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전시실 & 도서관

- 방과 마당 사이



- 지붕과 옥상 사이



☞ 공간영역을 한옥 외부와 한옥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도서관과 전시실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을 유도한다. 전시실에는 마당에 울타를 동으로써 찾아루에 들어 전시실 내부를 바라보게 하여 전시와 한옥을 동시에 체험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컨버터는 중앙 코어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스머움을 보여준다. 도서관에서는 컨버터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끼며 내부 마당을 통해 독서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토담길의 한옥 김나란

토담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한옥이라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그윽하고 소박한 멋이 깃든 나무대문으로 하여금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유로운 느낌이 듭니다. 딸의 손을 잡고 할머니댁을 방문하는 손녀의 씩씩하고 밝은 모습이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촬영장소 경남 산청군 남사에담촌



특별상



한옥의 곡선 유지훈

우리나라 한옥의 특징중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처마곡선입니다. 처마곡선을 양쪽 한옥집을 배경으로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이 들게 촬영한 작품입니다.

촬영장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금상



조심조심 임광엽

현대적인 아파트에 살아본 아이들이
층간소음문제로 살금살금 방안에서 걸어
다니듯 전통한옥마당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먼지가 나지않을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용한 적막감 속에서도 서로 소통되는
구조의 한옥은 아이들에게도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촬영장소 서울 성북구 장위동 김진흥가옥



한옥의 멋과 맛 허용복

촬영장소 충남 논산시 명재고택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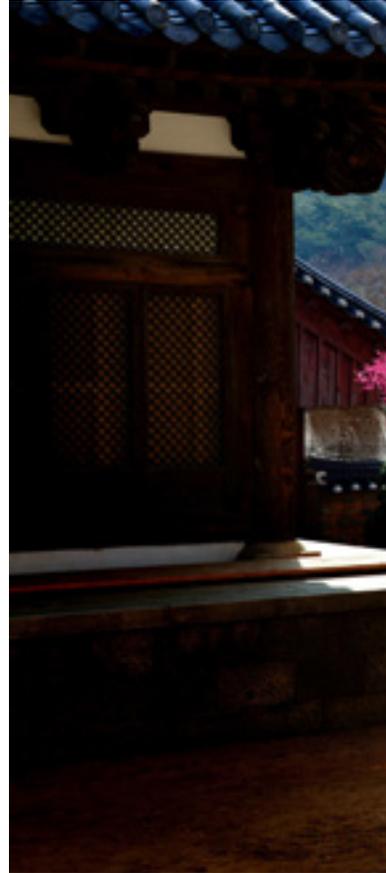
상고대와 소요정 유형민

촬영장소 전남 나주시 소요정



산사의 봄
김택수

촬영장소 경남 양산시 통도사



도동서원의 여름
박춘화

촬영장소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동상



지붕 위의 아름다움 황점순

촬영장소 경북 김천시 직지사





1



2



3

입선



4

1
곡선의 미학
제중권

2
공존
남종역

3
공존
최창렬

4
꽃감 말리기
변혜진

5
넘을듯말듯
고호준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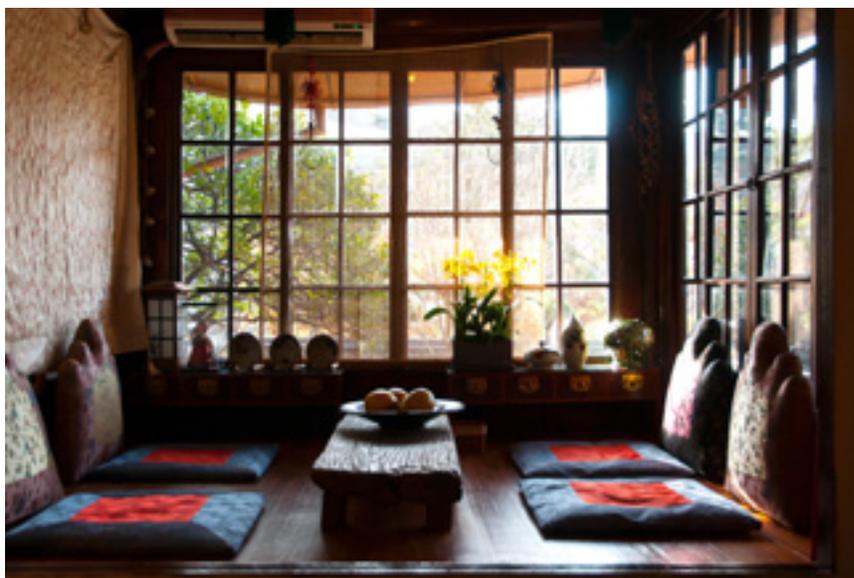


8

입선



9



10



11

6

늘 그 자리에

임규빈

7

도시 속 한옥마을

이명현

8

북촌을 품다

박영선

9

새 옷 입는 날

오관진

10

생활 속의 한옥

이현자

11

선조들의 시선

이성원



12



13



14

입선



15



16



17

12

아름다운 구성
김용천

13

자연과의 조화
박재영

14

전통을 바라보며
정혜승

15

지붕 위의 세상
류재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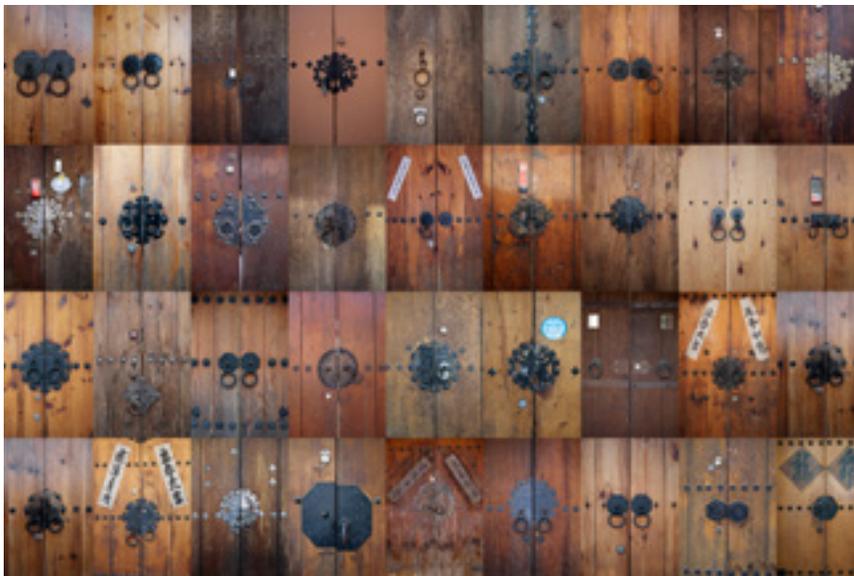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신라호텔,
라궁(羅宮)
송기욱

17

초가마을의 겨울
유형전



18



19

18
숲속의 집
임지연

19
한옥문 구성
김룡

20
한옥의 멋
박남철



20

사진부문

청소년



특별상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가을나들이 오성균

가족과 떠난 가을 단풍나들이.
번잡한 곳을 피해 외암 민속마을에 다녀
왔습니다. 노란 은행나무와 따스한 햇볕,
그리고 초가 지붕위의 은행잎이 만들어낸
목가적인 풍경에서 여유로운 가을을
만나고 왔습니다.

촬영장소 충남 아산시 외암마을



금상



외출 류준열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명재고택은 300년 사대부의 역사가 머무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3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는 어엿한 집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명재고택에서는 종가의 전통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을 판매하는데, 그 간장을 우리들이 한번 먹어 보고 싶다 하자 흔쾌히 승낙하시고 간장을 가지러 가셨다. 사진은 그 간장을 들고 나오시는 모습이다.

촬영장소 충남 논산시 명재고택



모두의 환영
이진성

촬영장소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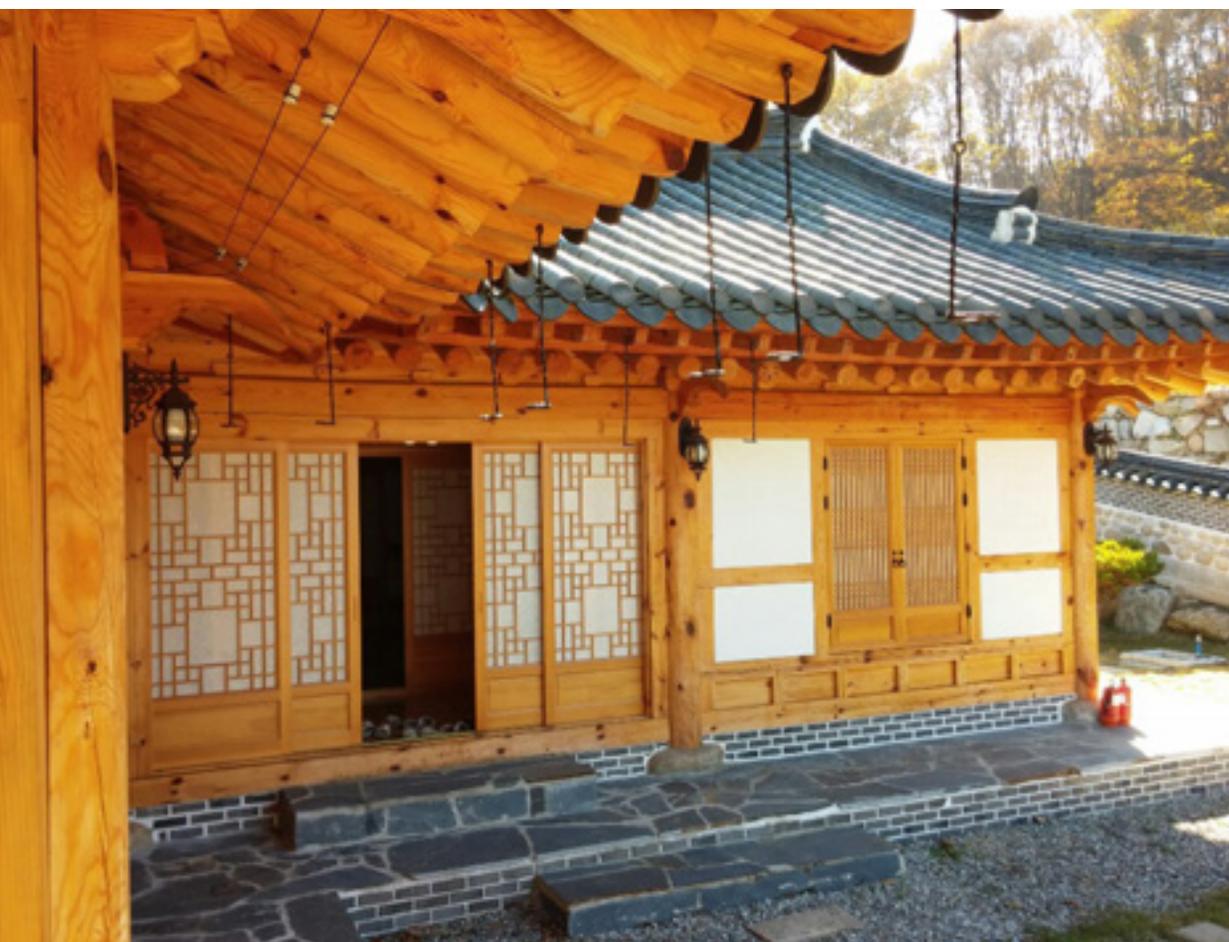
빛바랜 오후
최유정

촬영장소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



천년가
정승희

촬영장소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상



지나왔던 길
정은주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용궁으로 가는 길
한혜영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경복궁



1



2

입선



3

1
멋스러운 우리 한옥
정의한

2
황토한옥
한지훈

3
한옥 그리고 편안함
김현지

4
묘의 시선
김동희



4



5

6



7

입선



8

5
 소망을 묻고 희망을 맞이하다
 한다혜

6
 더불어 한옥
 강채원

7
 담장 안이 궁금해
 김세은

8
 반가움, 그리고 여유로움
 김지연

9
 잠깐의 휴식
 고희은



9

